

서울캠 총학 이승복·김태광 조 당선

총대·총여·5개 단대후보도 당선 ... 경주캠 총학 2팀 출마



지난 19일 새벽 서울캠 2000학년도 학생회 선거를 마무리하는 개표가 정보문화관 로비에서 진행됐다.

서울캠 2000학년도 32대 총학 선거 정·부학생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이승복(반도체학과 3)·김태광(국교3)조가 총 유권자 1만1천5백12명 중 6천6백6명 이 참여해 투표율 52.9%, 지지율 89.7%로 당선됐다.

이승복(반도체학과 3)·김태광(국교3)조가 총 유권자 1만1천5백12명 중 6천6백6명 이 참여해 투표율 52.9%, 지지율 89.7%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50.1%의 투표율로 가까스로 선거가 성사된 것과 비교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중선위의 한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조금이나마 투표율이 올라 다행"이라며 학생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총대의원과 총여 학생회를 비롯한 각 단과대 정·부학생회장선거의 투표결과도 다음과 같다.

△총대=채진석(경제3)군이 79.1%의 투표율과 지지율 92.0%로 당선. △총여=김박선경(행정3)·한이윤영(물리반도체과학부2) 조가 59.7%의 투표율과 지지율 91.5%로 당선. △문과대=신석철(국문2)·송창호(인문2) 조가 62.0%의 투표율과 지지율 90.4%

로 당선. △경상대=김덕기(경통2)군이 52.0%의 투표율과 지지율 80.5%로 당선. △생자대=홍균희(산자3)·고동희(식자2) 조가 71.3%의 투표율과 지지율 89.2%로 당선. △사법대=임은희(수교3)·김홍민(지교3) 조가 70.3%의 투표율과 지지율 94.8%로 당선. △아간교과=유승우(아시아3)·임형준(중문3) 조가 51.0%의 투표율과 지지율 94.6%로 당선.

한편, 경주캠 16대 총학생회 선거에는 기호 1번 정: 이정식(경제3)·부: 박수대(생물3)조와 기호2번 정: 박재섭(영문3)·부: 송동현(관경3)조가 출마했다.

선거와 관련하여 오늘(22일) 오후 6시 총대의원회에서 2차 틀미팅을 시작으로 △중앙 유세

= 25일 오후 1시 시계탑(1차유세), 29일 오후 1시 교내사거리(2차유세), 29일 오후 7시 교내사거리(야간유세) △선거일 및 장소= 12월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원효관 수위실 앞 등이다.

기호 1번의 주요 선거 공약으로는 △대학운영위원회 건설 △강의 개설권 요구 △자치예산제 실현 △상대평가제 철폐 등이며, 기호 2번은 △강의평가제 실시

△인근 대학간의 연대 활성화 △다양한 취업 대책 제시 △주변지역 학교 전용 정류장 설치 등이다.

한편 2000학년도부터 신설되는 관공대의 경우 이교형(관경3)·최서용(관경3)군이 단독 입후보했다. 투표는 내일(23일) 진흥관 로비 수위실 앞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양영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송석구 총장 중국성립 기념패 수상



본교 송석구 총장이 한국과 중국간 문화학술교류에 기여한 공

로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5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제작된 '문화부 기념패'와 '교육부 기념패'를 지난 16일 오전 중국대사관을 통해 전달받았다.

중국정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과 인사들에게 한정적으로 수여되는 이 기념패를 수상한 송석구 총장은 "앞으로도 긴밀한 유대를 갖고 양국간에 학술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4회 인권영화제 26일부터 시작

서울캠 학술문화관 등서 내달 2일까지 계속

제주 4·3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인 '레드헌트' 상영을 이유로 서준식씨가 구속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인권영화제가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아 인권운동사랑방(대표=서준식)과 본교 서울캠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 공동주최로 오는 26일부터 진행된다. ▶행사안내 8면

이번 영화제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해방투쟁에서 지도적인 흑인 좌익단체였던 흑표범당과 관련된 왜곡된 이야기를 끌어낸 다큐멘터리인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를 시작으로 '세계인권선언의 역사'(미국), '슬픔과 연민'(프랑스), '변방'(우크라이나), '소코로 노브레-삶은 어딘가에'(브라질), '모략당한 나의 이름'(미국), '에스코바의 자살 풀'(아일랜드), '이런식 이혼'(영국), '벌추지 않는 대량학살: 대인지뢰'(프랑스) 등의 주요 상

영작을 비롯해 '독방의 활력'(호주)을 비롯한 4편의 애니메이션, 그리고 인권영화상 후보작으로 출품된 '가치길 옆 공부방'을 비롯한 14편의 영화가 경연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영화상영외에도 그해 제작된 한국영화를 인권의 관점에서 심사해 그중 가장 뛰어난 1편을 시상하는 '올해의 인권영화상'을 비롯해 시민들이 직접 인권유린의 현장을 촬영한 뉴스영화를 상영하는 '카메라 인권지기' 등이 신설됐다. 부대

행사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운동가인 무미아 아부자말의 석방운동을 영화제 전 기간동안 전개하는 '양심수 무미아 아부자말의 사형을 중지하라', 28일 오후 4시 학술문화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되는 인권활동가와의 만남 시간인 '21세기 인권을 준비하는 사람들', 30일 오후 4시 예술극장에서 진행되는 '투자협정·WTO/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이 계속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영화제 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는 시민 참여에 의한, 시민을 위한 영화제를 지향하는 철저한 비영리 영화제로서 모든 영화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상영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99 민중대회... 99 민중대회가 지난 14일 여의도 공원에서 민주노총, 전농, 전국연합 등 51개 사회단체와 노동자, 농민, 학생 3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관련기사 4면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멀티미디어실 개소... 경주캠 도서관 1층 멀티미디어실이 개설돼 경주캠 학생들의 문화공간이 더욱 확장됐다. 김미영 기자 candy@mail.dongguk.ac.kr

2000학년도 입시 본격 시작 오는 24일부터 전반기 특차 접수

지난 17일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짐에 따라 본교도 본격적인 신입생유치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2000학년도 입시에 서 본교는 오는 24일부터 4일간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특차 전반기 모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그 막을 올릴 예정이다.

고교 내신성적과 외국어성적위주로 뽑게되는 특차 전반기 모집의 시험은 외국어 우수자, 수학과 과학 영역 우수자, 실업계 동일업계 지원자, 문학과 수학, 과학, 체육 특기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4일과 5일 양일간 치러진다.

한편, 경주캠은 타대학과 차별화된 입시전형으로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9일 경주 보문단지 교육문화관에서 포항·경주·울산지역 고교 3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초청 입시 설명회'를 개최했다.

입학전형 안내에 대해 경주캠 이계영 교무처장은 "관광대를 비롯한 여러 단과대와 학과를 신설하고 전공 교과목을 대폭 보완·수정해 신입생들의 유치에 보다 힘썼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웅곡대 이사장 본교방문 양 대학 협력방안 논의차

본교 자매대학인 일본 웅곡 대학 이사장이 일본 정토진중 본원사파 총장인 도요하라 다이조 박사 일행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본교를 방문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이조 총장을 비롯해 정토진중 본원사파 총무 후지카와 코쇼, 국제부장 하야시 아스키가 방문해 조계종 총무원장을 면담한 후 양 대학간 교류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동대학술상·문학상에 투자해 보십시오

수습기자모집 24일 마감 **발전기금 ARS 7000-119**

제 37회 동대 학술상

△모집분야 : 인문과학상 - 본상 및 기차
사회과학상 - 본상 및 기차
자연과학상 - 본상 및 기차

△응모요령 : 3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의 학술논문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 1999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상 : 인문과학상 - 본상 50만원, 기차 25만원
사회과학상 - 본상 50만원, 기차 25만원
자연과학상 - 본상 50만원, 기차 25만원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 2000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제 14회 동대 문학상

△모집분야 : 시부문 - 본상 및 장려상
소설부문 - 본상 및 장려상
평론부문 - 본상 및 장려상

△응모요령 : 시부문 - 3편내외
소설부문 -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평론부문 - 2백자 원고지 60매 내외

△응모자격 :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 1999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시상 : 시부문 - 본상 30만원, 장려상 15만원
소설부문 -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평론부문 - 본상 50만원, 장려상 25만원

△심사위원 :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상작과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 2000년 1월 1일자 본지 지상

* 제출처 :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동대신문사 02)2260-3491/2
*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그간 동대신문에 보내주신 많은 질책과 격려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대신문은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 전국의 고교교사, 사설 및 언론사 등의 공공기관으로도 배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알찬 동대신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격려주실 분은 구독료 납부에 동참해주시 바랍니다.

■보내실 곳 : 조흥은행 313-04-579764 (예금주: 양영진)
■구독료 : ₩10,000(1년분)

동대신문사

지면안내

대학토론문화 진단 6면



강한 유교 전통이어서, 일제 식민지와 군사 독재를 거치며 그야말로 한국 사회에서 '말'하기란 쉽지않다. 이제 그 틀을 깨고, 대학내에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자.

행정고시 수석 함해현씨를 만나 2면

살아숨쉬는 천년의 고도 '경주' 9면

'기대심리'는 무엇인가 10면



언제나 미소짓는 사람

박 경 준(불교대 불교학부)

부처님은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라고 갈파하셨지만, 동시에 고통의 바다를 건너 열반의 언덕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셨다. 그래서일까. 부처님은 언제나 그윽하고 흐트러짐 없는 미소를 지으셨다. 석굴암 부처님이나 미륵반가사유상, 그리고 우리 교정의 불상은 말할 것도 없고 불교 회화와 조각에 나타난 거의 모든 부처님은 하나같이 웃음을 머금고 계신다. 언제나 넉넉하고 여유로우며 평화롭고 자비로운 미소를. 그런데 이러한 미소는 그림이나 조각의 불상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석가세존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윤희와 라훌라 스님은 부처님 당시 인도인들은 부처님을 '언제나 미소짓는 사람'으로 묘사했다고 전한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한 초기경전은 언젠가 코살라국의 파세나디왕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고 적고 있다.

"다른 종교의 제자들은 모두 어귀고 거칠고 창백하고 무력하고 절망에 빠진 듯이 보이는데, 부처님의 제자들은 즐겁고 의기충찬하고 쾌활하고 기쁨에 넘쳐 있으며, 정신적 생활을 즐기고 만족해 하고 근심이 없고 평온하고 평화롭고 사슴처럼 밝은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이처럼 건강한 기질은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하고 완전한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치열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 밝은 웃음과 미소를 잃지 않고 지켜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모든 사물과 존재의 있는 그대로의 참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의 눈과 이웃과 세상을 뜨겁게 보듬어 껴안을 수 있는 자비의 가슴을 지니고,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모든 근심과 번뇌, 긴장과 고통, 원한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낙엽이 나뉘는 가을은 쓸쓸한 초겨울이지만, 우리 교인들이 '언제나 미소짓는 사람'의 당당한 후예들로 남게되기를 바란다.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모금 활발 고 이종린 교수 유가족도 책가중

불교병원건립기금 모금활동이 동문과 불자들의 참여로 활발하다. 박속아(68세) 불자는 지난 16일 1천만원을 기탁했으며, 본교 불교대학원에 재학중인 배관성씨(포에타리운 대표이사)와 사단법인 전법불교문화원 박성진 이사장이 각각 1천만원씩 기탁했다. 한편, 경주캠 미술조각전공자를 지원하는 선재장학금으로 용수사의 원행스님이 2천만원을 약정하고 일부를 기탁했다. 또한 본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고 이종린 교수의 유가족들이 이교수가 소장하고 있던 정치적 관련 서적을 비롯한 종교, 역사책 2천여권을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에 기증했다. 이 교수는 지난 85년 본교에 재직하던 중 별세했다.

2000학년도 연구년 교원 선발 특별기금 해외연수는 2학기 출국 예정

2000학년도 1학기 연구년 교원이 확정되었다. 이번에 선발된 교원은 서울캠 △서용길(불교학) △박영길(법학) △한진수(회계학) △김경태(식물자원학) △한용환(국어교육) △이주성(수학) △이영면(경영학) △최은민(컴퓨터공학) 교수이고, 경주캠 △황욱자(불교이화학) △심규박(정보통계학) △박동연(기초교육) △조창욱(경영학) △박현국(한의학) 교수이며, 기간은 2000년 3월 1일부터 2001년 2월 28일까지이다.

한편 서울캠의 엄기찬(전자공학)·이효승(기계공학) 교수와 경주캠의 △김복순(국사학) △오영석(행정학) △신홍록(한의학) 교수는 특별기금에 의한 교원해외 연수자로 선정되었다.

사무처, 겨울철 난방 개시

내년 4월 20일까지 계속
사무처(처장=황영수)는 교내 건물의 난방을 지난 10일부터 내년 4월 2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난방운영시간은 각 건물별로 오전 8시부터 △원흥관은 오후 7시 △본관은 오후 5시 △학생회관은 3시 30분까지이고, 나머지 건물은 오후 8시까지이다. 또한 중앙도서관은 오전 5시 4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만 난방을 실시하고 공휴일과 일요일에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은 난방하지 않는다.

원총 선거 내년 3월로 연기

선관위 회의 통해 최종 결정
16대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 선거가 내년 3월로 연기됐다. 지난 12일까지 후보등록 마감결과 출마자가 없어 지난 18일 열린 원총 선관위 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선거 실시 전까지는 현 15대 집행부가 권한을 대행할 예정이다.

“광역화 대비 학생회 체계 검토 필요”

2000학년도 학생회 선거가 지난 18일 막을 내렸다. 예년과 다름없이 3개의 중앙기구는 단독후보와 등록과 선거운동·당선으로 진행됐고, 단과대 선거 또한 전체 12개 중 5개의 학생회만이 건설됐다. 계속되고 있는 학생회 전반의 침체된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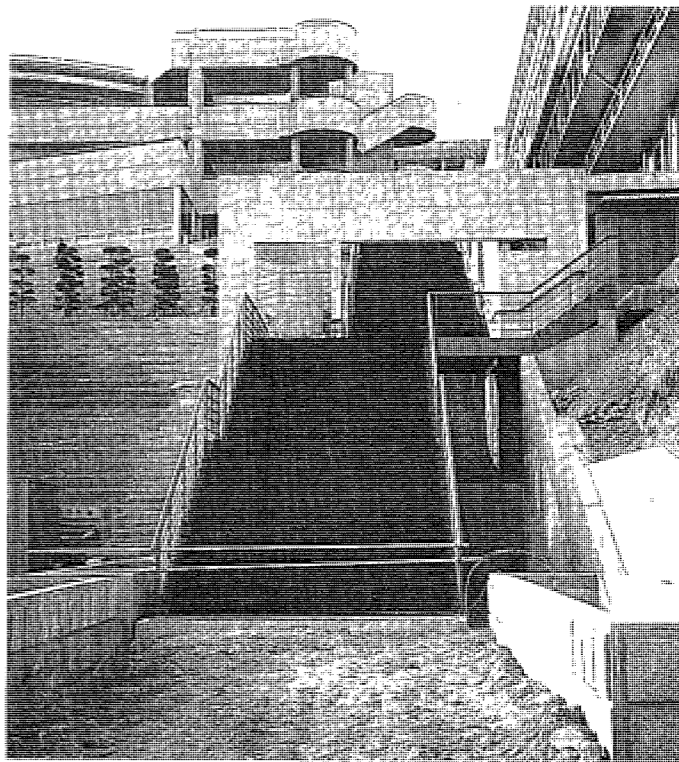
그러나 이번 선거는 예전과는 다른 몇가지 사안으로 학생회 전반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게 중론이다. 우선은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내년도 등록금 문제를 선거공간에서 공론화 시켰다는 점과 모집단위 광역화로 인한 학생회 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의 공유,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의 필요에 대한 공정이 있었다는 것이다. 등록금 문제는 7천여명의 학생들이

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고,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의 경우 전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한 모집단위광역화 상태에 대비한 학생회 체계에 대한 논의는 학생회 이월시기와 맞물리면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진범(영문4)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단독선거였음에도 몇가지 사안이 이슈화되면서 선거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진행될 거 같다”며 “내년에도 학생회체계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학부) 학생회 선거는 이러한 예측이 어느정도 맞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총회나 선거를 통해 건설되는 과(학부) 학생회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단위로써의 역할과 위상

이 많이 손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법대의 공대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단과의 과(학부)학생회 선거는 후보자가 나오지 않거나 내년도 미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내년 6개의 광역화된 모집단위로 인해 일부단과대는 선거자체를 못하고 있으며, 과(학부) 학생회 또한 마찬가지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대의원회의 한 관계자는 “문제해결의 방법은 학생회 간부들의 적극적인 고민과 학생들의 참여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내년도 학생회는 기초체 계부터 다시 쌓아올리는 것에서 출발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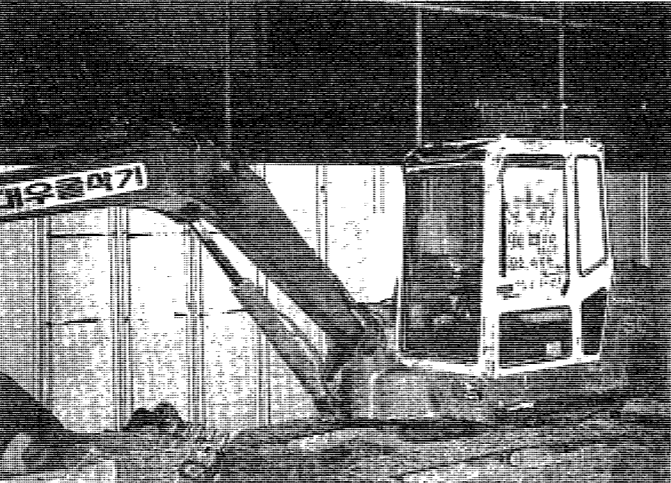


그동안 우천 등으로 인해 지연되었던 상록원 계단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등곡관 지역 학생들의 상록원 이용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양경민 기자 yangkyang@cakra.dongguk.ac.kr

다향관 전면 개보수공사 진행 기능직 통합사무실도 마련

지난 9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다향관 공사는 단순 내부공사 아닌 건물 전체 개보수 공사를 통해 새롭게 개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물 외형을 비롯한 내부까지 전면적인 공사를 통해 내년 2월에 입주하는 SRC(양자기능반도체연구센터)와 정보관리처의 시설가동에 더욱 효율적인 공간 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설관리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다향관 공사로 문을 닫은 언어교육원의 다음학기 이용

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무처(처장=황영수) 시설관리팀은 지난 16일 도서관 후면 목공실에서 기능직 통합사무실 입방식을 개최했다. 기존에 도서관 후면에 있던 목공실의 작업실은 참고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철공실과 근로요원실, 조정도장실, 목공실로 나누어져 있던 공간을 하나로 통합한 사무실을 마련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포크레인 기사사건 ... 각 고등학교의 동문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향관 공사 중이던 포크레인(가)까지 동문회 광고자 범위가 들어왔다. 양철주 기자 cowso@cakra.dongguk.ac.kr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수석합격자 함해현(경행 97졸)
지난 18일 발표된 제43회 행정고시 합격자 1백82명 중 본교에서는 함해현(경행 97졸), 이용주(무역 98졸), 장금용(경행4)씨가 최종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이중 최고 득표수로 수석을 차지한 주인공은 바로 함해현(경행 97졸)씨. 이에 함씨를 만나 그간의 얘기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았다.
- 현재 소감은 어떠한가.
= 무덤덤하다. 그 동안 힘들게 노력한 만큼 그 대가라고 생각한다.
- 본격적인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했나.
= 대학교 3학년 그러니까 95년부터 준비했다.
- 몇 번만에 합격의 영예를 안은 것인가.
= 4전5기이다. 4차례 낙방을 경험했고 5번째만에 합격하게 되었다.
- 원래 전체수석이 목표였나.
= 응시분야의 모집인원이 3명뿐이기 때문에 수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때문에 기존 수석합격자 점수를 목표로 공부했다.
- 응시 분야가 소위 인기분야가 아닌 보호관찰분야인데.
=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분야이고, 중요한 분야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꾸준히 이 분야의 일을 하면서 또 범죄화 분야 등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
-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 본래 몸이 건강하지 못해 어려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세상과 단절된 생활속에 인간적인 도를 다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특히, 부모님께 죄송스럽다.
- 공부하는데 비법이 있다면.
= 역대 수석합격자들의 수기를 스캔해서 참고했다. 또 기본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게 정독했다.
-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 여행, 등산을 많이 하려고 한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도 많이 하고 싶다.
- 앞으로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은가.
=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권력이나 명예보다도 국민에 대한 봉사를 우선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부주간장 심규박 하이텔 ID dgpress 니우누리 ID 동대신문
편집국장 박상관 천리안 ID dgupress
편집장 김미경 구독문의 : (02)2260-3491 ~ 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불광동 7가 26 동대신문 (우)702-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0-1270 전파 (066)1770-2558 팩스 (066)1770-2057

교직복수전공·부전공 이수

- 교직복수전공
1. 공통사항
1) 이수자격 : 복수(학위)전공자로 선발된 사범대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2) 이수방법 : 사범대학 학과 및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과(전공)
3)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학위복수 전공신청으로 대체함.
2. 이수학점
1) 복수전공학과 표시과목 관련 교직기본이수영역별 대체교과목(9학점이상)과 전공학점 4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2) 교직과목이수 : 부전공 교직이수시에 취득한 교직과목은 복수전공을 이수할 때에 이미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재차 이수할 필요가 없으나, 교직과목 중 복수전공과과의 교과교육론 및 교과교육연구 및 지도법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3) 비사범계 학생은 복수전공학과의 취득평점평균이 80점(B+)이상이어야 함.
■ 교직부전공
1) 이수자격 :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2) 신청시기 : 99. 11. 22(월) ~ 11. 26(금)
3) 신청방법 : 부전공 이수 신청자에 부전공학과 주임교수 합의를 받아 사범대학 교과과에 제출함.
4) 부전공학과 교직기본이수영역별 대체교과목(9학점이상)과 전공 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5) 교직과목 중 부전공학과 교과교육론 및 교과교육연구 및 지도법은 별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6) 비사범계 학생은 부전공학과 취득평점평균이 80점(B+)이상이어야 함.
■ 기타유의사항
1) 교직과정 이수자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교직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교원자격증 발급이 불가함.
2) 교직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이수하여 교원자격증 발급요건을 갖추어도 주전공 교직 이수과정이 교원자격증 발급요건에 미달하였을 경우는 교직복수전공 및 부전공 자격증 발급이 자동 취소됨.
3) 교직복수 이수자 중 이수학점이 복수전공 학점에는 부족하나 부전공이수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는 부전공 이수를 자동 인정함.
4) 교직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동일학과에 신청한 자가 교직복수전공 자격증 발급요건을 갖추었을 경우는 별도로 부전공 과목표시는 하지 않음.

서울캠 사범대 연구처 생활협동조합

동계 해외 자매대학 중국어연수 시행

동계 해외 자매대학 중국어연수 시행에 따른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함.

- 연수기간 : 2000. 1. 3 ~ 2. 12(6주) (출국 : 2000. 1. 3(월), 귀국 : 2000. 2. 14(월))
- 연수기관 : 중국 상해사범대학
- 연수인원 : 제한없음
- 연수내용 : 외국인인을 위한 중국어학습(독해·회화·특별강좌)
- 연수장비 : 자비부담

구분	상해사범대학	비고(인당)
등록비	면제	
학비	\$450	6주 기준
기숙사비	\$5.5	1일기준
식비	\$5	1일(3식) 기준
기타경비	별도	항공료, 주말관람비 등

- 기타사항 : 학점인정("해외 중국어연수" 3학점)
- 신청자격 : 본교 학부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단, 현재 졸업예정자는 제외)
- 신청서류
가. 해외 자매대학 어학연수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입학신청서(소정양식) 1부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11. 22(월) ~ 11. 30(화)
나. 본관 2층 연구처 국제교류담당관실 ☎ 2260-3875, 경주캠 연구교류실 ☎ 770-2042

* 주의사항 : 중국 상해사범대학 입학신청서(소정양식) 작성시, "여권에 관한 사항" 및 "본인 중국어 능력(수준)"은 반드시 기입할 것.

생활협동조합 2주년 행사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하여 조합원들을 위한 할인행사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매장명	내 용		행사기간	비 고
	메뉴	가 격		
서점	상록원 2층	갈비탕, 제육덮밥	700원	1999. 11. 26(금) 1997. 11. 27
	동곡관 1동	육개장, 탕수육백반	700원	
	교직원 상록원 3층	뷔페식	3,000원	
	분식/스네	전 품목	500원	
매점	상록원 1층	정식, 불고기 덮밥	1,500원	" 일부품목 제외
	동곡관 1동	휴지, 과자류, 빵, 음료 할인	"	
시점	강의동 V101호 (명진관 옆 가건물)	전공 교재류	10% 할인	" 11. 22(월) ~ 11. 30(화)
	상록원 1층 (본식코너 앞)	교양서적	15% 할인	
인경원	상록원 1층	안경	20% 할인	" 일부품목 제외
	컨택트 렌즈	10% 할인		
집회점	컨택트(강의동 옆)	전품목 할인	"	" 11. 22(월) ~ 11. 30(화)
시점관	"	현상, 인화, 필름, 촬영	10% 할인	
컴퓨터	"	A4용지, 디스켓, CD	할인	"
문구점	강의동 1층(서점 옆)	일부품목 할인	"	"
	동곡관 M동 3층	일부품목 할인	"	"

“교육환경 내실화로 우수신입생 유치”

경주·포항·울산지역 50여개 고교 진학담당교사 초청 입시설명회 개최

▶1면에서 계속

54개 고교 2백30여명의 진학지도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설명회에서는 △학교홍보영화 상영 △이갑득 기획처장의 학교연혁보고 △송석구 총장의 본교 교육정신과 장·단기 발전계획 소개 △최규철 부총장의 교무위원소개 △이계영 교무처장의 2000학년도 입학전원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송석구 총장은 “입시설명회를 통해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연계해 교육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교는 오늘부터 30여 개의 포항·경주·울산 고교를 대상으로 ‘고교방문 교양특강 및 입시설명회’를 진행한다.

교양특강위원 1인과 입시설명위원 1인이 1개교로 구성된 방문홍보는 직접 학교를 방문해 2000학년도 대학입학요강 및 주요사항에



경주 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에서 입시설명회 식전행사로 국악공연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 안내와 캠퍼스가이드 책자, 기념품 전달, 학교 홍보 비디오 상영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수를 감안할때 지방대학의 경우 대학 정원보다 지원자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이미 교육부에서 나온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교 경주 캠퍼스 같은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입시홍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본 캠퍼스만의 특성화된 학과 및 전공의 신설과 내실있는 교육환경의 조성이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다. 김미영 기자 candy@mail.dongguk.ac.kr

신기술보육사업 결과 발표

인터피드백 등 5개업체 서류전형 합격

벤처창업보육센터(소장=황운식·회계로 이하 창업센터)는 지난 19일 벤처사립방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에 관한 초청특강을 가졌다.

예비 입주업체 확인과 우수 벤처기업 평가를 위해 열린 이번 특강은 입주업체들이 모인 가운데 기술신용보증기금 김경학 차장의 강연으로 치러졌다.

한편 창업센터는 지난 18일 산업자원부의 TB(신기술 보육사업)사업에 응시한 인터피드백 △랩스 트루먼트 △이동용 교수 △김의창

교수 △문태수 교수 등이 모두 1차 서류전형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터피드백 최남영 대표는 “공중전화 카드 또는 일반 카드에 음성을 압축입력하고 이를 읽기 시스템을 통해 불러오는 음성 광고 시스템을 TB에 응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창업센터는 신기술보육사업 심의일정에 대해 창업센터 홈페이지 및 센터 건물내에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합격시 최고 1억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만큼 좋은 성과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전무대

난장판

O...의예과의 Ring Virus(?!)
은방울 원효관에 자리한 의예과 학회실은 굳게 문이 닫힌채 난장판(?)이 되어 있어 이를 지켜보는 학생들을 분노에 떨게 한다는데.

내용인즉, 의대학생들은 공간부족 문제로 동아리방을 마련하지 못해 학회실을 각종 악기와 물품들의 보관장으로 이용한다고. 더우기 끔찍한 이 현실은 다음해까지 계속된다 하니. 이에 인격없는 학회실에서 들리는 링 바이러스 “학회실을 정리하지 않으면 난 죽는다(!)”

선거열기=싸움(?)

O...참모들의 신경전(?)

선거 열기가 한창인 요즘은 은방울의 출준후 후보자 참모들은 서로 말도 안되는 트집을 잡으며 어이없는 신경전을 벌이고. 내용인즉 공약금 마감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늦게 냈다며 자격박탈과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했는데. 이에 반대 후보자 참모는 비난의 폭이 넓다며 이에 맞선 대응책을 강구하며 나섰다하니. 이에 본 회전무대지 말 “오고 가는 입씨름에 끼여지는 선거문화”

홍물

O...뺨치마! 다쳐!

요즘 각 동아리와 학생회는 자신이 주최하는 행사의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길과 계단에 무더기로 홍보물을 붙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이 예술적(?)으로 붙여놓은 홍보물들은 학생들 보행에 불편을 주고, 이에 보다 못한 학교측은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해 이 홍보물을 때내는데. 지나가던 학생 길에 붙은 화살표 홍보물을 보고 한마디 “DDR 연습하라는 건가?”

예속물허

O...오르락 내리락?

주가가 큰폭을 유지하며 급등 급락을 반복해 투자자들의 진땀을 빼고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관련 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하며 상승장추하는 반면 나머지 종목들 대부분은 쓰디 쓴 잔을 마시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이는 주식 전문가들도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펼 정도로 예측불허하고. 이에 답답한 투자가 한마디 “텔미 썰민 즐리즈!”

2000학년도 학생회 선거, ‘삐걱삐걱’

상경대 선관위 의혹 제기, 자연대 투표율 과반수 미달로 무산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상경대. 경성학부. 아간강좌 총학생회. 자연대. 동원 등이 선거를 치렀으며, 학생복지위원회와 협정대는 각각 오는 22일, 29일에 치러진다.

아간강좌 총학생회는 정:최현수(법3)·부:이승현(호텔경영3)조가 단독 입후보해 총 유권자(4학년 제외) 6백 59명 가운데 4백 5명인 투표, 61.5%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90.9%의 찬성으로 당선되었다. 경성학부는 박준민(경상학부1)군과 최규식(경상학부1)군이 입후보해 박준민군이 57.7%의 지지율로 4대 학부 학생회장으로 당선됐다.

지난 17일 선거를 치른 동아리연합회는 정:양은광(경영2·대자리원봉사단)·부:이현숙(영문3·소리창교)조가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선거결과 총 유권자 98명 중 79명이 투표해 79.4%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이 가운데 찬성 68표(86.1%)를 기록했다.

상경대는 정:이성우(경영3)·부:상경대는 정:이성우(경영3)·부:

순석우(경영3)조가 단독 입후보해 총 유권자 1천 57명 가운데 5백 71명이 투표, 54.0%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80.2%의 찬성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진흥관(B202)에서의 상경대 선거 개표 중 선거인 등록부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표가 20표를 나와 한때 선거조작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상경대 김동규(경영4) 선관위 위원장은 “여분의 20표는 찬성표에서 빼는 것으로 선거를 매듭지겠다”고 선거를 종결지어 선거관리 과실에 따른 선관위 측의 책임성 논란도 일고 있다. 그러나 총학생회 선거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상재·회계4)의 경우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표가 20표를 초과할 경우 선거 자체가 무효로 처리돼 재선거를 치르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중선위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연대 선거의 경우 정:김상은(생물3)·부:최은주(가교3)가 단독 입후보했으나 총 유권자수 1천 3백 11명 가운데 6백 2명인 투표에 참가,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한 45.9%를 기록해 선거가 무산됐다. 선거 당일 저조한 투표율을 두고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연대 선관위 측은 빠른 시일 내에 후보자 등록을 받아 재선거를 치르겠다고 했다.

상경대는 정:이성우(경영3)·부:순석우(경영3)조가 단독 입후보했다. 선거는 오는 22일 오후 4시 학생복지위원실에서 치러지며 주요 공약 사업으로는 △정산상환을 통한 ‘월별 등록사랑 캠페인’ 실시 △교내 게시판 문화 정착 등이다.

법정대는 정:이선경(행정3)·부:김건표(법2)조가 단독 입후보했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흥관 수위실앞에서 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투자경제교실 특강

사회문화교육원(원장=임배근·경제학)은 오는 30일 오후 6시30분 원효관 소강당Ⅱ에서 ‘투자 경제교실’ 초정공개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주식시장의 올바른 이해와 성공투자 전략’이라는 연재로 김진성 한국산업투자 자문사가 강연할 예정이다. 강연내용은 △비리직접 증권 투자방식 △미래의 한국증시 진단 등 2천만원으로 1백 50억을 벌어들인 그의 주식투자 방법들이 소개된다.

학각스님 초청강연회, 불교 입문과정 소개

불교문화대 학생회(회장=류동호·불교3)는 지난 18일 서울 회계사 국제선원의 현각스님을 초청해 ‘새천년 한국불교와 세계종교’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가졌다.

한편, 허버드에서 회계사까지다

여학생실, 작품전시회 개최

여학생실(실장=박명숙·가정교육학)은 지난 3일 치러진 ‘만다라 제작 워크샵’에서 선정한 학생 작품을 학생회관 3층 옥야실에서 다음달 1일까지 전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만다라’소

한의학연구소 강연회

한의학연구소(소장=최달영·한의학)는 오늘(22일) 오전 11시 한의학과 M301에서 ‘한의학에서의 면역학 연구’라는 주제로 초청강연회를 개최한다.

한의학과에서 국내·외적으로 첨단 의학의 접목을 통해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강연회는 원광대 약대학 한의학학과 교수로 있는 김형민 교수가 발표하는데, 학부생 및 대학원생도 참석이 가능하다.

제1대 관광대 학생회 선거 입후보자를 만나

“특성화된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터”

정: 이교형 부: 최서용

2000학년도부터 관광대학이 신설됨에 따라 제1대 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정:이교형(관경3)군과 부:최서용(관경3)군을 만나 출마동기와 주요 선거 공약사항에 대해 들어 보았다.

출마동기는
= 처음으로 신설되는 만큼 관광대학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학우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봉사할 각오가 돼 있다.

주요 공약은
= 첫째로 관광대학내 학술 동아리 창설·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다. 둘째 자체적인 소식지 발간을 통해 대학내 실정과 학생회가 진행했던 사업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학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다. 셋째로는 연합 학술제 및 취업 설명회를 개최

하여 예비 취업생들의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그밖에 학업 설명회를 통한 학생들의 교양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광대 학생회의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생회가 학우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방의 특성화된 관광대로 거듭나기 위한 선결 과제는
= 학교측의 양적인 배려보다 실험실습 확충을 통한 현실적인 교육이 이뤄지도록 현실 측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관광경영학부와의 연계를 위한 방법은
= 관광대내에 있는 각 과의 학생회를 통한 운영위원회를 거쳐 학생들이 요구하는 바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신설되는 단과대학인 만큼 구성원들의 많은 도움과 격려가 절실하며, 학우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민주적인 학생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
terry@mail.dongguk.ac.kr

비디오 대여

여학생실에서는 직업의 세계 비디오 112종을 학생들에게 무료로 대여 합니다. 대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여학생실로 문의 바랍니다.

〈목록〉

1	10살년의 올바른 직업관	14	컴퓨터입문 프로그래머	27	방송PD	40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2	컴퓨터·정보분야	15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28	패션모델	41	치아미러
3	경영·금융분야	16	경영컨설팅	29	교사	42	호텔저택인
4	제조업분야	17	기자	30	백앤서	43	조리사
5	언론·출판분야	18	공인회계사	31	코디네이터	44	우체국 공무원
6	환경분야	19	출판검열사	32	119 구조대원	45	자동차정비사
7	의료분야	20	원사	33	뮤지비디오킷 감독	46	정보시스템 관리인
8	건축·토목분야	21	외사	34	스튜디오트레이닝사	47	웹마스터
9	예술분야	22	간호사	35	카메라사	48	헤드링터
10	디자인분야	23	안사	36	방송작가	49	인쇄물레이어
11	스포츠분야	24	제품디자인사	37	애니메이터	50	양복디자인사
12	컴퓨터 프로그래머	25	패션디자인사	38	사회복지사	51	랜디디자인사
13	캐드/레이아웃	26	인테리어디자인사	39	뮤지컬배우	52	미디어연가

〈목록〉

1	미용사	16	영화기획자	31	인테리어 디자인사	46	멀티미디어 PD
2	일러스트레이터	17	퀴즈쇼 기획자	32	주한외국대사관 직원	47	컴퓨터입문 프로그래머
3	제품디자인사	18	복수교사	33	방송국 PD	48	에니메이션
4	조경가	19	광고음악사	34	신문기자	49	관공자
5	디스플레이	20	출판기획자	35	방송국 아나운서	50	이벤트 전문가
6	황정가사	21	전통가인사	36	외국계기업 직원	51	방송작가
7	전문서	22	이미지컨설팅	37	컴퓨터 프로그래머	52	성우
8	조리사	23	공인중개사	38	초중등 교사	53	방송 촬영인
9	여경	24	브랜딩메이커	39	운용원	54	방송연기자
10	유치원교사	25	광고카피라이터	40	정부투자기관 직원	55	국제번역사
11	광고디자인사	26	광고대행사 PD	41	대기업 인사부 직원	56	정문기가 바리본 유통직종
12	강령평가사	27	증권회사 직원	42	해상운송인사	57	영화 프로듀서
13	사회체육지도사	28	외환딜러	43	건축사	58	캐드/캠 컨설턴트
14	재무제행사	29	호텔 고급 전문직	44	광고회사 AE	59	유류 미연디자인사
15	레크리에이션 지도사	30	외상디자인사	45	방송작가	60	큐레이터

문의 ☎ 770-2056

경주캠 여학생실

컴퓨터 사용 문의

정보관리실에서는 정보 활용 마인드 확산의 일환으로 전 교직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사용에 관한 문의 진화를 다음과 같이 개설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시간 : 오전 9:00 ~ 오후 5:00
컴퓨터 문의전화 : ☎ 0561)770-2487

운영체제	윈도우95, 유닉스, win98
PC용 소프트웨어	한글97, MS office(2000 Access, Binder, Outlook, Word, Excel, Power Point), 포스트 5.0, 넷스케이프, 익스플로러, 나로 웹에디터, Inell CAD, SPSS, V3, winzip
각종 사용법 및 이용안내	모형을 통한 전화접속, telnet, E-mail 보내기, 홈페이지만들기 소프트웨어 설치방법, 인터넷을 이용한 음악 다운로드, 비디오 보기, 압축 및 해제방법, 각종 BBS 접속방법 등
하드웨어적 문제	하드웨어구입 및 각종 오류에 관한 문제

경주캠 정보관리실

고시장학생 선발고사

1. 일시 및 장소 : 1999. 12. 11(토) 09:30~12:20 / B302 진흥관 3층
2. 원서접수 기간 및 장소 : 1999. 11. 18~ 12. 3 남정대 교학과
3. 시험과목

사범시험반	행정고시반	외무고시반	공인회계시험반
1학년 영어, 한문, 인종	영어, 행정학, 한문	영어, 국제정치학, 한문	영어, 회계학, 경제학
2학년 영어, 한문, 인종, 한문	영어, 행정학, 한문	영어, 국제정치학, 한문	영어, 회계학, 경제학
3학년 영어, 한문, 민법, 형법	영어, 행정학, 한문	영어, 국제정치학, 한문	영어, 회계학, 경제학
4학년 영어, 한문, 민법, 형법	영어, 행정학, 한문	영어, 국제정치학, 한문	영어, 회계학, 경제학

경주캠 고시지도위원회



본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여의도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들의 깃발과 대표적인 재벌그룹의 계열사 발딩이 대조적이다.



전통복장을 한 지게꾼(?)이 등장했다. 지게 위에는 페나 가버워 보이는 상자가 놓여 있지만 그 상자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문구가 쓰여있다.



이번 집회에는 외국인 단체도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영어로 쓰여진 플래카드가 왠지 어색해 보이지만 그 뜻은 결국 하나 '민중생존권 쟁취'이다.

이주의 열사



이덕인(당시 28세) 1995년 7월 4급 장애인 이덕인 열사는 인천 아암도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하려 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24일 경찰과 철거회사 직원들은 아암도에 난입, 강제철거를 진행했다. 이에 열사와 그의 동지들은 망루에 올라 농성을 전개했고 망루는 외부로부터 고립되었다. 다음날 그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실종되었다. 3일 후인 28일 그는 바닷가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으며 발견당시 상처투성이에 빗줄로 묶여 있었다. 그 후 경찰은 시신을 탈취, 훼손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인을 익사로 발표했다.



"뒤집어도 국가보안법 철폐" 선전물을 뒤집어 들고 있지만 학생들의 표정은 많은 동자들을 만난 탓인지 즐거워 보인다.



집회장소의 여의도공원 바닥에는 하얀색 천이 길게 깔렸다. 어느 순간 흰 천 위에 쓰여진 글씨들, 그것은 바로 '악법, 국가보안법 철폐'이다.

사진 김진아 기자 / 글 남대철 기자

99년 11월 22일

“민중만이 희망이요 희망은 단결이다”

민중생존권보장·경제주권수호 등 민중 11대 요구 발표

민주노총, 전농, 전국연합, 전빈련 등 51개 사회단체와 노동자·농민·학생 3만 명은 지난 14일 여의도 공원에서 99년 민중대회를 열고 △생존권 사수 △경제주권수호 △국가보안법 철폐 △노동시간 단축 △농가부채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대중 정부는 민중생존권 보장과 민주개혁요구를 묵살한 채 한미·한일 투자협정과 WTO협정으로 나라의 경제주권마저 빼앗기고 있으며, 국회는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민중생존권과 관련한 ‘민중11대’ 요구를 내걸었다. 이와 함께 “민중11대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오는 27일 국회 앞 연대투쟁을 시작으로 대정부·대국회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결의문을 통해 밝혔다.

장은 “정부가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나라의 노동자와 농민·빈민 그리고 전체 민주화세력은 김대중 정권에 정면으로 맞서는 강고한 정민중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연대사를 통해 권영길 민주노동당(준) 대표는 “민부격차가 날로 심해져 가고있다. 가진 자들의 잔치판을 노동자의 힘으로 바꾸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중의 단결이 유일한 희망”이라며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종필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노동자 민중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경제가 초국적자본의 손에 넘어가고 점점만 남았다”며 “강한자에 빌붙어서 꼬리 흔드는 개가 되지 말고 5천만 문화민족으로서 자주독립국가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

한미군철수는 정당한 것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날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마포대교를 건너 공덕동, 만리동 고개를 경유해 서울역까지 3시간에 걸친 행진을 가졌으며, 서울역에서 간단한 정리집회를 한 후 해산했다.

이번 민중대회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증가하는 빈민의 수와 고용불안의 심화, 그리고 한미·한일 투자협정 및 WTO협정을 앞두고 초국적 자본으로부터 민중생존권과 경제주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데 힘을 모았다.

한편, 오는 12월 10일에 열리는 2차 민중대회에서는 더 조직적이고 강고한 민중연대투쟁을 구축할 것을 결의했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민중대회에서 만난 외국인

“국가보안법은 Just Bad”

14일 오전 중앙대에서 노동자대회를 마치고 여의도 공원으로 향하던 중 집회에 관심을 갖고 참가한 외국인을 만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고 미국 노동당 멤버이기도 한 Annie O'Neil은 우리 나라에는 10년 전 와보고 이번이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한다.

- 학생들이 무엇을 외치는지 알고 있는가.
=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노동에 관련된 것, 그리고 여성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주한미군철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도 외국인 군인들을 싫어한다. 외국군인이 자국에 있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 국가보안법에 대해 알고있는가.
= 국가보안법은 나쁘다(Just bad)고 생각한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내 변호사조차도 국가보안법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

동약로

“너 누군지나 알고 투표하는 거냐?”
“어차피 찬반투표인데 뭐... 꼭 알아야 되냐?”
지난 16일부터 3일간 총학생회와 총학생회 등 학생회 선거가 치러졌다. 건물 곳곳에 배치된 투표소 앞은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투표를 권유하는 선거운동단원들과 표를 행사하는 학생들로 분주하다.

“그런데 왜 매년 찬반투표지? 꼭 우리가 공산당인 것 같다”
투표를 마치고 난 한 학생이 찬성반대를 묻는 투표용지를 보고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온 ‘북한 공산당’의 선거 모습을 연상한 듯 하다.

사실, 최근 몇 해 동안 학생회 선거는 대부분 후보자의 단독 출마로 치러지고 있다. 총학생회 선거를 비롯한 단과대학의 출마자는 거의가 단독후보였으며 몇몇 단과대는 후보자가 없어 이에 선거가 치러지지 않기도 했다.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나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학생회 선거는 이미 옛날 얘기가 되어 버린 지



학생회의 힘

오래다.

학생회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기구이며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등의 일상적인 요구 외에도 사회적 모순에 대항하는 정치적 운동도 함께 하고있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침체에는 한층더 이적규정으로 대표되는 정권의 탄압과 학생들에 발맞춰 가지 못하는 학생회의 문제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학생들의 무관심이다.

따라서 이렇게 침체된 학생회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학생회의 주인이 나서야 한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권리를 손에 쥐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층더 이적규정으로 당선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자가 되는 대표자들. 이제라도 그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인다면 학생회는 더 나은 모습으로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학생회의 기반 속에 여러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 논쟁을 펼쳐며 치러질 내년 학생회 선

거를 상상해 본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한미·한일 투자협정을 말한다

“속은 다 내주고 껍데기만 남긴다”

글 쓰는 순서

1. 한미투자협정은 무엇인가.
2.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문제점
3. 우리의 대응 방향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 ‘투자자’ 및 ‘투자’의 개념이 매우 넓게 정의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투자협정은 기업, 주식, 채권,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형태의 것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이들은 모두 협상의 대상인 것이다. 이는 명백히 투

기적 목적을 지닌 해외 단기적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정부에서 이를 통제하거나 심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당한 ‘투자’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투자협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의무이행 강제 금지조항’을 들 수 있다. ‘해외투자자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은 자국의 발전 전략에 입각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외투자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스크린쿼터제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위 조항을 근거로 미국이 국산영화의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스크린쿼터 철폐를 주장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조항이 사회복지부문과 노동부문에 미칠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수 합병된 국내기업의 실업 및 노동조건에 대해 국내기업을 인수한 외국자본은 이 조항에 따라 고용승계의 의무, 현직인 일일비율 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는 특히 한미투자협정의 다른 편에서 아무런 공적 합의 없이 일사천리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한일간투자협정에서 현재 ‘노동조건자 임금 지급금지’, ‘내국인 의무 고용비율부과 금지’ 등 민중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의제들이 협상테이블에 올려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가장 큰 특징으로 ‘투자자’ 및 ‘투자’의 개념이 매우 넓게 정의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투자협정은 기업, 주식, 채권,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형태의 것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따라서 이들은 모두 협상의 대상인 것이다. 이는 명백히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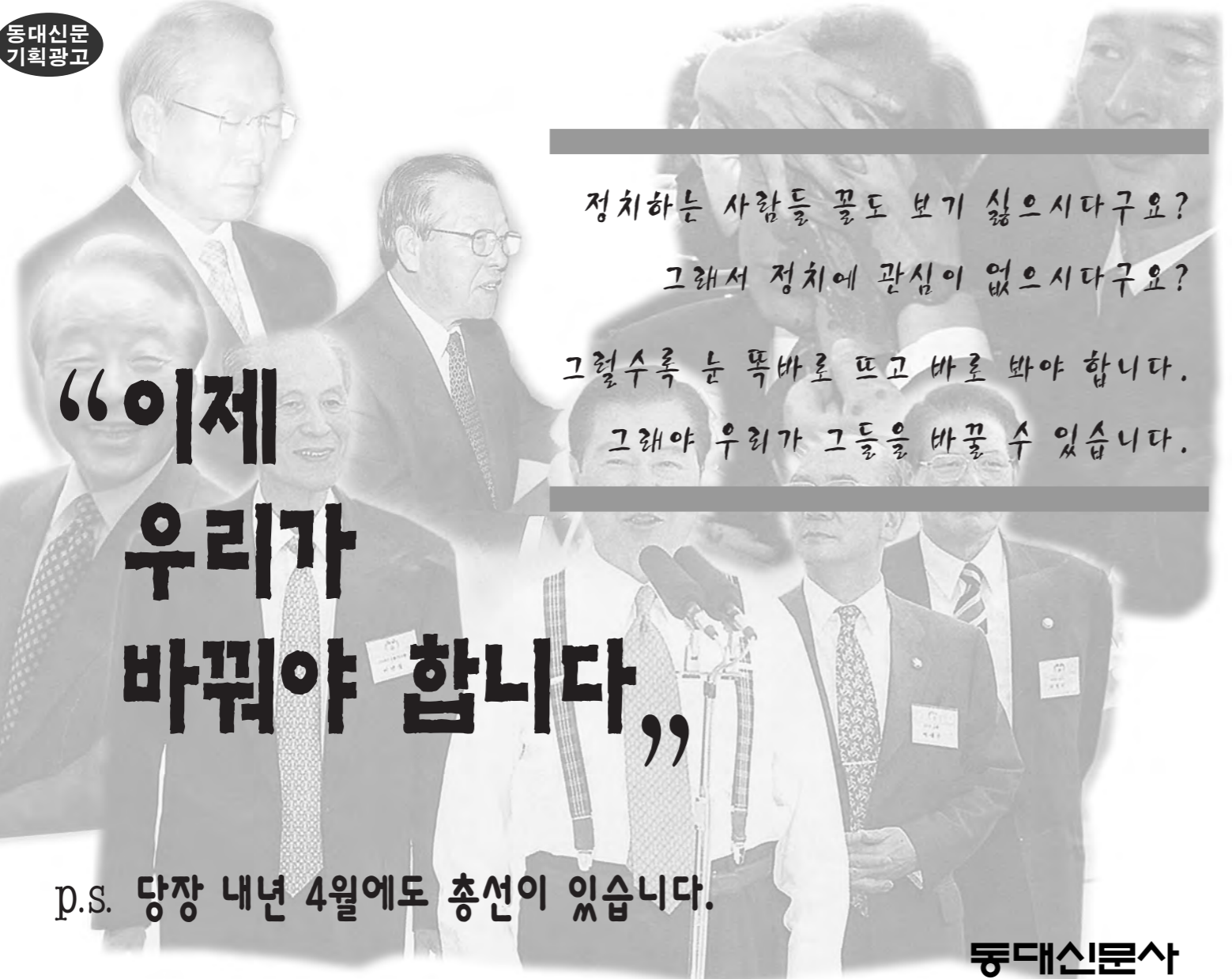
기적 목적을 지닌 해외 단기적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정부에서 이를 통제하거나 심사할 수 없으며 오히려 상당한 ‘투자’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투자협정이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먼저, ‘의무이행 강제 금지조항’을 들 수 있다. ‘해외투자자에 대한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은 자국의 발전 전략에 입각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외투자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최근 스크린쿼터제가 논란이 되었던 것은 위 조항을 근거로 미국이 국산영화의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스크린쿼터 철폐를 주장

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조항이 사회복지부문과 노동부문에 미칠 영향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인수 합병된 국내기업의 실업 및 노동조건에 대해 국내기업을 인수한 외국자본은 이 조항에 따라 고용승계의 의무, 현직인 일일비율 고용,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것이다.

이는 특히 한미투자협정의 다른 편에서 아무런 공적 합의 없이 일사천리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한일간투자협정에서 현재 ‘노동조건자 임금 지급금지’, ‘내국인 의무 고용비율부과 금지’ 등 민중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의제들이 협상테이블에 올려지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해외투자자는 우리땅에서 이행해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



정치하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으시다구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다구요?

그럴수록 눈 똑바로 뜨고 바로 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p.s. 당장 내년 4월에도 총선이 있습니다.

동대신문사

사회부

우리나라 정당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 **논단**

보스중심의 지역정당 탈피...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기존정당들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 창출된 지역당

정치학 교과서에서는 정당이 '현대 정치의 생명선'이라고 가르친다. 현대 민주 정치는 의회 정치이며, 의회 정치는 정당 없이 운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은 생명선이 아니라 정치발전의 걸림돌일 뿐이다. 정당 정치가 과연 정치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주요한 정치적 변혁이 결코 정당에 의해서 주도되지 않았으며, 정당이 정치과정에서 독립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오히려 정치 변동이 일어날 때마다 정치적 혼란의 틀바구니에서 마치 혼란의 책임이 정당에 있는 것처럼 단죄되어 정당은 법외의 존재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정당은 해체되었다가 재창당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바람에 정당의 연속성이 단절되었고 수명도 짧았다. 따라서 정당 정치가 뿌리내리지 못했고 정치는 정당 이외의 권력 요소에 기생할 수밖에 없었다. 물리적 힘(군부)이라는, 극단적인 지역주의가 정치를 움직여왔던 것이다.

기존 정당의 문제점

정당의 민주적 경향을 통해서 정치 권

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권력의 필요에 의해 정당이 탄생되었던 것이 집권당의 현실이었다. 50년대 자유당, 6,70년대의 공화당, 80년대의 민정당, 90년대의 민주당과 신한국당, 한나라당은 모두 권력에 의해 위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었다. 유일하게 권력을 창출한 국민회의도 특정 지도자의 뜻에 따라 만들어졌고, 정당보다는 그 지도자의 능력으로 권력을 만들었다. 야당도 권력집권 봉쇄에 대한 반발로 만들어지고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았다. 즉 집권당은 근본적으로 '권력 쟁점의 주도'로 창당되었고, 최고 통치권력과 운영을 같이 하는 기생정당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정당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정당은 정책 대결을 하기보다는 특정한 지역의 절대적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1인 보스를 중심으로 연줄로 형성된 무원칙한 인맥집단이다. 정당의 가장 커다란 차이가 민주 대 반민주, 개혁 대 반개혁, 진보 대 보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다. 그러다보니 정치 현안에서 지

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선거에서도 지역주의가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 되는 것이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에게 앞날은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치가 바뀌는 것 같지 않다. 정치는 새롭게 태어나는 커녕 낡은 정치의 추악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그 바탕에는 극단적인 지역감정이 깔려 있다. 지역감정은 우리 정당이 이념과 노선, 정책의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지역적 기반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당이기 때문에 일어난다. 따라서 정당들은 지역 갈등을 생존의 자양분으로 삼고 있다.

NGO의 역할 대두

이처럼 정당이 정책대결이 아니라 지역 대립에 의해 운영된다 보니 정당이 할 일 가운데 많은 부분을 건전한 시민사회단체가 맡고 있다. 자율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 권력의 집중과 전제화 경향을 견제하고 다수의 횡포에 대항하여 소수의 권익 보호, 시민정신의 함양 등의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 정립에 한 몫을 하



손혁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비리정당의 방향

그러나 정당을 통한 정치활동은 국민이 국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당을 통하지 않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국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 시민단체들이 준정당의 구실을 하는 지금도 여전히 정당은 국민을 정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정당은 근대적 대중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내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중앙당과 지구당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만들고, 정치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자극하지 말고 정책대결을 해야 한다.

사설

노근리와 고엽제 그리고 미국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68, 69년 서부전선과 중동부 전선 일대의 비무장지대에 이른바 북한군과 간첩의 침투를 막기위해 목적으로 고엽제를 살포했다고 한다. 살포된 비무장지대의 총면적은 2천2백만평에 이르며, 고엽제 살포에는 연인원 7만명이 동원되었다. 당시 고엽제 살포작업에 미군은 한명도 직접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오직 우리나라 군인들만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원된 한국군은 아무런 방독 조치도 없이 분무기를 사용하거나 분말가루를 맨손으로 뿌렸다고 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을 숨겨왔던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얼마전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당시 미군은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 왔었고, 또 지금 미군의 모습은 어떠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다. 그리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경남 거창, 산청, 함양, 경기 고양, 금정, 전남 함평 등에서 양민 학살과 이반에 밝혀진 고엽제 문제 또한 우리 국민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엔 언론을 통해 확인된 미군의 한국에 대한 범죄는 책임자의 공개적인 해명과 함께 그 진상이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한국전쟁 당시의 양민학살 문제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미군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조건없는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인 불평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한미행정협정과 한미투자협정 등도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중을 위해 정부가 가야 할 길

우리 삶의 현 주소를 직시하게 보여준 IMF체제가 시작된 지 어언 2년여가 지났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경제는 2년전보다 나아졌다고 말할 수만은 없는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

대조차 장담하기 힘들어진 북한의 경우를 봐서도 알 수 있다.

다시말해 우리사회의 빈부격차는 단순한 경제적인 차이가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로서 사회의 기본 질서를 파괴해 버릴 소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경제지표나 외환보유고는 호전되었지만 빈부의 격차는 점점 벌어져 1인당 최저 생계비인 23만원보다 더 적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하는 절대 빈곤 인구가 1천만명에 이른다고 어느 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복지 기금의 확대나 일자리 창출 등 현실적인 대안을 하루빨리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확대된다면 나중에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사회적 위기로 사회적 약자가 무조건 참아야 할 상황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도 국회는 국민들이 납부하는 혈세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고민하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 힘든 이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앞으로 다가올 총선은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 대다수인 민중들의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패배가 다음 세대로 연결된다면 그 역시 사회적 공황과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기아로 70여만명의 사상자를 내고 자라나는 세대의 성장을 막아 미

강제 철거 아직도 진행 중

“철거에 앞서 ‘살 곳’을 마련해 달라”

철거 반대, 개발 반대 아닌 생존권 투쟁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보급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그들은 소위 '철거민'이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는 철거민과 철거유역원들간의 몸싸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귀인마을 철거에 대한 강제철거과정에서 3급 장애인인 오미연씨(53세, 여)가 목과 허리를 부상당하고 실신해 인근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총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강제철거로 인한 철거민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80년대 중반까지의 지나간 일로 생각하고 있으나,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요즘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강제철거의 본체는 바로 자본의 힘을 앞세워 개발을 실시하려는 쪽과 생존권을 위해 싸워야만 하는 이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데 있다. 즉, 철거민들은 어떠한 다른 이익을 바라고 싸워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은 궁지에 몰린 그들로서는 최선의 선택인 것이다.

월드컵 경기장 부지로 선정된 상암동을 비롯해 안양 귀인마을, 의왕시 내손마을, 종로구 송인1동 공안마을,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최촌마을, 서초구 방배4동, 관악구 봉천3동 등에서 강제 철거가 진행되고 있거나 철거가 이미 이뤄진 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3일에는 마을이 강제철거 당한 뒤 안양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하고 있던 귀인마을 철거대책위원회에 폭력을 동원한 강제 철거가 실시되는 등 상식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폭력을 동원한 철거과정에서

더욱이 국민의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현행도시개발법 제27조 1항에서 시행되는 재개발 구역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 구역 또는 그 구역 외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 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 수용에 상응



하는 조치를 취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담당기관 역시 뒷집만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 없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하는 이들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절실하기만 하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자신의 재임과정에서 강제철거가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제라도 그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며, 덧붙여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하는 국가는 존립의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철거민들이라고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도 개발의 필요를 인정하지만 문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법에 명시된대로 '살 곳'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의 주장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포항제철은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20세기 마지막 공 하나

9회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 쓰리볼-
여러분이 마운드에 선 투수라면
어떤 공을 던지겠습니까?

스트라이크 직구의 승부공을 던질 수도 있고
옆으로 빠지는 커브의 유인공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공을 던지기 위하여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한 학기의 마지막이자 1년의 마무리인 중강-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강으로 나라사랑
포항제철
http://www.posco.co.kr

2000학년도 온방골 총학생회, 총여학생회에 임후보한 후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제시하는 사업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새천년 온방골 짙어지고 갈 새 주역들

총학 기호1번 정 : 이정식(경제3) · 부 : 박수대(생물3)조

“학생자치권력회복에 힘쓸 터”



정 : 이정식 부 : 박수대

제17대 총학생회에 임후보한 이정식(경제3)·박수대(생물3)조를 만나 출마동기와 선거공약에 대해 들어보았다.

- 출마 동기는.
= 정 : 이번 99학년도 총학생회를 비롯한 지난 90년대 초·중반기의 학생회는 7·80년대의 민주화투쟁을 부르짖었던 학생회와 별반 다를 것 없어 학생들의 진정한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학생회를 외면하게 되었고, 외면되는 학생회, 대리주의로 전락한 학생회는 힘을 잃어 학교 당국에 이끌려 가는 모습만을 보여줬다. 이에 기존 학생회의 틀이 아닌 학생자치권력이 복원된 학생회를 건설하고자 출마하게 되었다.
부 : 정 후보자와 같은 생각이다. 지금의 우리 학생회는 7·80년대의 학생회가 지닌 모습을 따라 가려고만 하는 것 같다. 이런 학생회는 대학의 순기능을 억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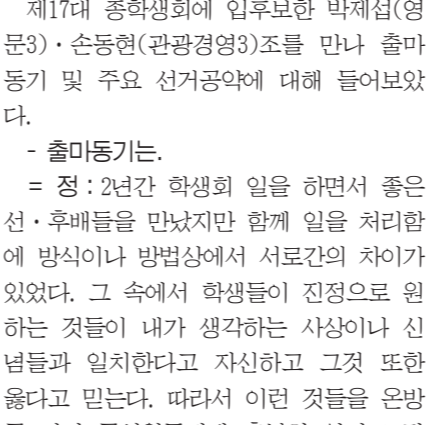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 총학생회의 위상과 역할 및 16대 총학생회를 평가한다면.
=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학생자치 권력이 회복된 차원에서 이야기하면 총학생회 집행부들만의 생각이 아닌 대중적으로 학생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16대 총학생회의 경우 시험기간 중 도서관 24시간 개방과 학생회관 식당 공개 입찰과 같은 사업은 성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회의 독자적인 행사와 집행부 개인의 의견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대체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학생과 같이 움직이는 학생회가 되지 못했다. 운영에서는 권위주의적이고, 독단적인 부분이 많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논의해 나가기엔 총학생회의 문턱이 너무 높았다.
- 주요 공약사항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사업은.
= 학생자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전대에 이루지 못했던 대학운영위원회를 우리캠퍼스의 실정에 맞게 건설해 학내 3주체가 한 자리에 모여 열린교육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기존의 미흡했던 강의계획서를 보다 세밀히 보완 작성하고 학생들이 강의개설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강의평가제를 확대시킬 것이다. 셋째, 학생자치문제가 아닌 교수 편의를 위해 만든 상대평가제를 철폐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억제시키고 대학을 인력양성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학

사관리 엄정화를 폐지시킬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공약사항도 모두 중요하겠지만 대학운영위원회 건설과 실업대책, 각 학과 학회까지 사업·문화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자치예산제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다.
- 중운위의 활성화 방안은.
= 기존의 중운위는 각 단체 대표들만이 참석해 회의속에서 전체학생들의 의견을 모두 대변하는 양 논의된 내용을 결정짓고, 대리주의적인 모습을 지녀왔다. 하지만 이제는 자치예산제를 실시해 각 학과 소모임(동아리)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중운위를 건설할 것이다.
- 경주캠퍼스의 당면과제 및 대안은.
= 학생과 학생회와의 의사소통이 부족하니 당연히 학생들은 학생회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조한 선거참여율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은 기존의 학생회가 가져온 사상운동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 같다. 우리 역시 일념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한 신념·사상 등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뿐이지 학생회 사업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은 이런점을 이해해주고, 사업에 동참 해줬으면 좋겠다. 학생 개개인이 가진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표현해주는 길이 학교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도록 만드는 지름길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통로는 대표성을 지닌 학생회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김미영 기자
candy@mail.dongguk.ac.kr

총학 기호2번 정 : 박제섭(영문3) · 부 : 손동현(관광경영3)조

“일만학우 눈높이에 맞춰 사업 전개”



정 : 박제섭 부 : 손동현

제17대 총학생회에 임후보한 박제섭(영문3)·손동현(관광경영3)조를 만나 출마동기 및 주요 선거공약에 대해 들어보았다.
- 출마동기는.
= 정 : 2년간 학생회 일을 하면서 좋은 선·후배들을 만났지만 함께 일을 처리함에 방식이나 방법상에서 서로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 속에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사상이나 신념들과 일치한다고 자신하고 그것 또한 옳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온방골 여러 구성원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과감하게 도전했다.
부 : 과거 학생회의 수직적인 피라미드 구조에 적응은 실망을 했다. 집부의 생각이 아닌 일반 학우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만 과거의 학생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사업을 이끌어 가는 것은 학생회지만 이를 이끌어 주는 학우들의 도움이 절실하기에 출마했다.
- 총학생회 위상과 역할 및 16대 총학생회를 평가한다면.
= 총학생회는 일반 학우들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총학생회는 학교의 형식적인 대표일 뿐 주인은 온방골 1만 학우들이라 하면 학생회는 학생들의 심부름꾼인 셈이다. 그러나 일반 학우들이 다가가기에는 현 학생회의 문턱이 너무나도 높다.
한 집단의 장이 모든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느 한쪽에서만 치우친 점이 없지 않았고, 이 때문에 소수 의견에 융통성을 발휘하는데도

부족했던 것 같다. 사업들간에 연계가 되지 않았고 한 사업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 주요 공약사항과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사업은.
= 교육·복지환경 개선, 대학간 대외적인 협력강화, 취업대책방안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환경부분은 원호관 종합강의실에 병·난방기 설치, 수강제한 조치를 철폐, 강의 평가제 실시 등이다. 강의 평가제는 매 학기마다 수강신청과목에 대해 불충분했던 수업 정보를 얻고 강의평가를 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가 수업 태도, 학습 등을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예비 직장인들을 위해 취업 특강, 모의 토익 시험을 비롯해 그밖의 각종 취업시험 및 임시채용의 기회를 늘리는 등 학교측과의 연계를 통해 4학년 학생들의 취업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지방캠퍼스로서 그동안 경주캠퍼스는 다양한 정보획득 면에서 불리한 여건이었다. 이를 극복키 위해 인근 경주 대학을 비롯해 4대 대학들간에 유대 관계를 갖고, 친선경기를 통해 서로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대외적으로 학교 이미지를 높일 것이다.
끝으로 복지 환경 개선의 경우 운동장의 농구대 증설, 야외 조명 설치하고 또한 셔틀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동시에 학교 인근주변에 학교 정류장을 설치해 카풀제도를 널리 활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백상탑 본래의 색으로 바꾸고 학내 사제 시간, 선·후배 간의 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작은 부분부터 여러 구성원들과 함



정 : 박제섭 부 : 손동현

께 호흡하는 총학생회가 되도록 하겠다.
- 중운위의 활성화 방안은
= 올 한해의 중운위는 하나의 힘으로 단합되지 못하고 편이 갈린 집단이주의적인 성격이 심했다. 한 집단의 사상이나 이념이 학생회간의 사업을 앞서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점들을 감안해 학생회간의 잦은 대화나 맨투맨 면담들을 전개할 것이다. 서로 이해가 될 때까지 충분한 대화만이 침체된 중운위를 다시 활성화시킬 것으로 본다.
- 경주캠퍼스의 당면과제 및 대안은.
= 방중에 행정개편이 됐지만 자치권이 예전보다 향상된 측면을 찾아볼 수 없다. 단지 표면적인 변화일 뿐이지 내부적으로 경주캠퍼스는 여전히 서울캠퍼에 종속돼 있다. 언제까지나 서울캠퍼에 종속돼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이 21세기 경주캠퍼의 생존 전략이라고 본다.
장희정 기자
biwon@mail.dongguk.ac.kr



정 : 최진욱 부 : 정수미

‘평등과 해방의 전략’이라는 기치아래 남녀 평등을 내세우며 제16대 총여학생회에 임후보한 최진욱(고미사3)·정수미(불동3)양을 만나 출마하게 된 동기와 주요 정책 및 공약사항에 대해 들어보았다.

총여후보 정 : 최진욱(고미사3) · 부 : 정수미(불동3)

“여학생 새터·성폭력 근절 학칙 제정 적극 추진”

- 출마동기는
=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남·여 불평등에 대해 특별히 느끼지 못했는데 대학에 들어와 학생회 일을 하면서 사업과 정책에서 남성중심 운동권이라는 불합리한 의식들이 눈에 보였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들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대학사회 속에서 총여학생회라는 조직을 통해 온방골 여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출마하게 되었다.
- 15대 총여를 평가한다면
= 온방골의 4천여명 여학우들을 조직화

해내는게 가장 큰 역할이니만큼 여학우들에게 주체의식을 일깨워 주는 것이 최대의 목표라고 여겨진다.
이런 점에서 지난 15대 총여를 타 단체 학생회나 자치기구와 비교한다면 더 많은 사업을 진행했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남성주의 운동권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던 반면 총여는 여성주의를 크게 표현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 주요정책이나 공약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 표면적으로만 하는 사업보다 한가지라도 확실하게 매듭을 짓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내에 여학우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표현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부족하다. 80%의 여학우들이 모여 있는 원호관에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편의시설이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따라서 여학우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여성들간의 만남의 공간을 마련해 주고 연대의 장을 열어갈 것이다. 또한, ‘여학생 새터’라는 여학우들을 위한 여학생 예비대를 개

최해 각종 세미나와 강연회를 열어 선후배간에 튼튼한 유대관계도 형성해 나갈 것이다.
- 성폭력 근절 학칙 제정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은
=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학내에서도 많은 성폭력이 행해지고 있다. 신체접촉만이 성폭력이 아니라 술자리나 M.T.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도 성폭력이라고 본다. 지난 15대 총여가 처음으로 성폭력 근절 학칙 제정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킨 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 연장선

에서 16대 총여학생회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학칙이 제정되도록 하겠다.
- 여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대안은
= 작은 학과 소모임을 통해 여학우들간의 교류를 확대시키고 여학생 스스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함으로써 남녀가 평등하다는 의식과 함께 잃어버린 여학우들의 권리를 되찾도록 노력하겠다.
최창호 기자
windy@mail.dongguk.ac.kr

연재소설 (9)

계론의 필통

글 이우상 그림 삼철공

우리끼리만 연락이 분주했다. 일개미처럼 정해진 회로를 오가며 분담을 떨었다. 덕태의 장엄한 애국심에 감화되어 어느덧 나와 재속이도 신도가 되어 있었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조종되는 기계적 속성이 우리 종족에는 있는 것일까, 발을 들여 놓으면 전력부구하는 야릇한 습관 때문일까. 한때 우리를 두고 들쥐떼라고 한 것이 있었지. 누워있던 애국심에 불을 지피고 그의 큰코가 벌겋게 달구어지도록 들불을 번지게 한 적이 있었지. 그러나 코른 그 장수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반론은 신문의 어느 귀퉁이에도 비집고 들어가지 못했었지. 일이면 일, 소비면 소비, 탐욕과 타락이면 그것, 정신없이 따라가고 하는 속성이 우리 종족에게 없단 말인가.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평준화, 획일화 되었던 말인가. 젊은 처녀는 어찌 이렇게도 똑같은가. 가는 허리, 둥근 얼굴, 긴머리, 진한 화장, 춘향이와 심청이도 똑같은 얼굴이었을까. 분명히 직접 전했지. 그림, 두눈 똑똑히 바라보고 전했지. 그런데 왜 연락이 안와. 기다려 봐야지. 언제까지. 도장 찍고 사진 찍고 협상 끝난 후에 지내 할머니 산소에나 가보지고 연락하면 뭐해. 뭐라고 적어서 전했나. 시키는대로 했지. 만나고 싶다고. 너의 필통을 기억하고 있다고. 네 할머니는 네가 떠난 후 5년인가 7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이웃 사람들이 후하게 장례를 치러 주었다고. 그 외에 다른 얘기는? 만나기만 하면 소부를 친다면? 편지 봉투 속에 우리 세사람의 명함을 단정하게 넣었다. 어디로든 연락이 오겠지. 그래, 연락만 오면, 만나기만 하면 자신 있다. 사타구니라도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하지. 나 하나야 뭐 걱정이. 국가부도가 문제지. 국가부도라는 말에 힘을 주는 덕태의 음성에는 장엄미마저 서려 있었다. 애국심이란 평소에는 쪼그라진 채 늘어서 있다가 요긴할 때 벌떡 일어서는 성기와 같은 것일까.



애국심이란 평소에는 쪼그라진 채 늘어서 있다가 요긴할 때 벌떡 일어서는 성기와 같은 것일까.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뭉쳐서 피라도 말할 듯이 유난을 떨었지만 우리는 결국 계론을 만나지 못했다. 그가 묵고 있다는 호텔에 접속을 시도해보았지만 그곳은 주석공보다도 더 견고한 장막과 시간장치들로 둘러쳐져 있었다. 협상이 끝났다는 보도와 함께 그의 일행이 출국하는 정경을 TV화면에서 볼 수 있었을 뿐이다. 닭똥만 개인

가, 달보고 경경 짓는 강아지인가. 연구실에 낫선 글자의 팩스 문서가 한 장 도착해 있었다. 뻔뻔한 영어가 담긴 감열지를 죽 찢어 얼굴 가까이 들어대니 두개골에 금방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 골치가 짜끈거렸다. 덕태와 재속이에게도 같은 내용의 팩스를 받았다고 연락이 왔다. 한반도를 떠나기 직전 반종인 계론이 보낸 것이었다. 한차례 폭풍이 불어쳐 반파된 목선이 저만치서 밀려오는 해일을 물끄러미 바라보아야 하는 시점이었다. 덕태와 재속이에게 연락했다. 아직 명맥을 잇고 있는 무교동 낙지집에서 만났다. 장렬한 애국심으로 불타던 덕태는 점퍼를 걸치고 나왔다. 여류 명사의 반열에 끼여 표정 관리에 골몰했을 재속이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다. 단장하지 않은 중년 여인을 바라본다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을 것이다. 저마다 꾸깃꾸깃 접은 감열지를 주머니에서 꺼냈다. 해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붉은 줄을 그어 놓은 것을 재속이에게 내밀었다.

필통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없다. 그걸 내뿜어 붙여 끌고 다닐 만큼 한가롭지 못했다. 할머니를 돌보

아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다.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 너희 나라(그는 너희 나라라는 표현을 썼다)가 겪는 어려움은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본다. 이번엔 내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단순히 서류 정리를 위해서 방문한 것이다. 협상이란 말은 타당하지 않다. 처음부터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알아주기 바란다. 허락을 해주느냐, 허락을 받느냐는 문제였을 뿐이다. 그런걸 미국에서는 협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미국 중심의 헤게모니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는 평온을 누릴 수 없다. 외환준비가 부족,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 해결 방법이 협상이 아니다. 북측이 있는 것이다. 너희 나라는 작은 일본이라는 것도 안다. 일본 제품과 차별화 된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 나라에는 산업 정책을 장기적으로 진지하게 마련하려는 지도자가 정계, 경제계 어디에도 없다. 북한을 포함 6천7백만개의 입을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의 대통령의 임기는 2년 혹은 3년 밖에 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왜 그러냐고?

달하나 천강에 그리운 청년 제자들의 모습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세월의 빠름을 느낀다고 한다. 소년기에는 주변의 사건들을 포함한 삶의 제한 환경이 단순하지만, 세월이 갈수록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다양해진다. 그 안에서 생존하고, 경쟁에서 앞서려는 노력에 매진하다 어느 순간 뒤를 돌아 볼 때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인 자세로 경쟁에 참여하고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나아가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느끼는 세월의 속도는 다른 사람의 그것보다 더 빠르다. 시간이 빨리 흐를수록,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려 애쓰는 노력을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삶이 아름다워진다. 반면에, 경쟁에 소극적이고 사회의 변화에 수동적이며 모든 방면에 노력이 부족한 삶은 물질적, 정신적인 면에서 운명적이라 할 수 없겠다. 이는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 사회도 나이가 들며, 그 구조도 지역간의 관계에서 국가간의 관계로 팽창하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개체가 국가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간의 경쟁의 결과가 국가라는 사회를 형성하는 모든 구성원의 삶에 반영된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의 속도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경쟁 사안이 되는 과학 지식 및 공학 기술의 발전 속도 역시 급속하게 빨라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아직은 국가간의 경쟁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위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근처에라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팩스 아메리카나의 상상이 코카콜라나 맥도널드 햄버거로부터 마이크로소프트로 바뀌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기술이 "미국=세계제일의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데 결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시대의 소비들이 속에서 미국법원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대한 독점인정 판

결을 지켜본 필자는 미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정의실현에 대한 존경심보다, 새로운 천년에도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심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 이 관점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첨단 지식과 기술을 자국내의 기업들과 공유하여 새로운 시대에 미국이 산업 기술로 세계를 지배하고자하는 고도의 정책이라 생각하면 전율마저 느낀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가까운 주변은 물론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 이러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미래를 설계하는 '지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하겠다.

동국교정에 들어와 두 번째 가을을 보내며, 청년 제자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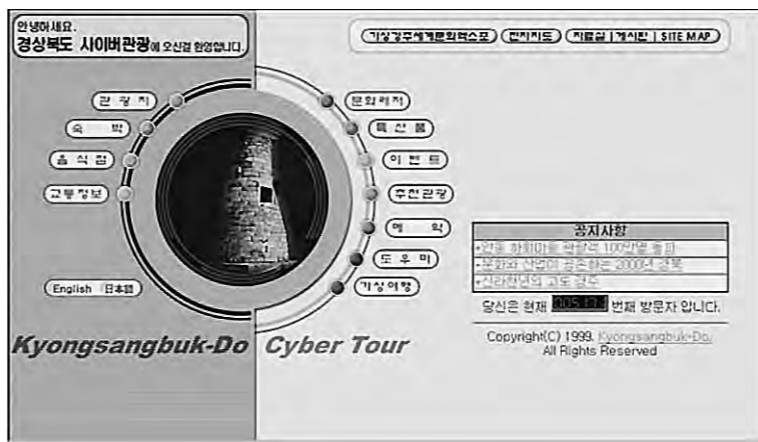


이강우 정보산업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클릭! 경상북도 사이버 관광

네티즌 관광 도우미 "경북을 한번에"

경주캠 주재훈 교수 중심 10여명의 동국인이 꾸려



http://www.clicktour.kyongbuk.kr

남아공에 사는 줄리엣은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료를 찾다 한국의 경북 사이버 관광사이트(http://www.clicktour.kyongbuk.kr)를 찾게됐다. 먼저 안내 지침서에 따라 가상여행을 통해 방문지의 개략적인 정보를 익힌 후 애니메이션과 3차원 입체공간에서 현장스케치를 맡겨 즐길 수 있었다. 몇번의 클릭만으로 쉽게 교통편에서부터 숙박까지 구체적인 여행정보를 세우게 됐다. 하지만 줄리엣으로 하여금 여행을 결심하게 한 가장 큰 동기는 문화유산의 예술성을 기본으로 한 과학성, 숨

어있는 배경 설화까지 학문적인 교양으로 섬세하게 해줘 일석십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데 있다.

경북 사이버 관광사이트를 세상에 공개하기까지 일등공신은 본교 경주캠 정보산업학과 주재훈 교수.

그는 경주에서 강의를 맡는 순간부터 문화에 대한 열의가 대단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인터넷 상에서 관광문화 정보가 총 망라된 사이버 공간을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다"며 관광자원을 어떻게 하면 네티즌들이 네트워크 상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쉽게 접하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 2년 전인 97년 시청에서부터 경상북도 도청에 이르기까지 분주하게 뛰어다닌 덕에 때마침 지난 98년 5월에 한국 전산원 주최로 개최된 지역정보화 과제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자료들을 모아 제출한 결과 무려 30 :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6억원을 지원받았다.

경상북도 사이버관광 사이트에는 협정대를 중심으로 수백새와 전통 탈이 한껏 멋을 뽐내고 서 있다. 타원을 그리며 관광지 안내에서 숙박·음식점·교통정보를 비롯해 문화재·지역특산물·문화이벤트·추천관광·예약·도우미 등이 한눈에 펼쳐져 있다. 추천관광의 경우 여행자의 일정에 맞게 일정별·계절별·주제별·오지탐방·전문가 탐방코스 등으로 영어, 일본어로도 표기돼 있어 사이트를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더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텍스트와 이미지로 구성된 가상여행 및 3D 동화상을 즐길 수도 있다.

현재 다우기술의 개발아래 본교 정보산업학과 10여명의 졸업생·재학생, 문태수(정보산업학과)교수, 김세곤(불교아동학)교수, 박종희(관광경영학)교수들과 함께 지금까지 인터넷 '경상북도 사이버 관광'을 꾸려오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구팀들의 업그레이드 노력은 △문화 관광의 상품화를 위한 인터넷 기반 전자상거래 인프라의 구축 △풍부한 콘텐츠와 일단계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시스템의 지향 △관광 수요의 창출과 지역 업체의 수익증대 효과 등으로 이어져 세계속에 한국문화가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희정 기자
biwon@mail.dongguk.ac.kr

The 4th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 11월 26일(금)
 - 19:00 개막식
 - 20:00 개막작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 11월 27일(토)
 - 예술극장
 - 18:00 국가범죄-레드헌트*
 - 20:10 세계인권선언의 역사
 - 20:50 우리 친구야/변방
 - 소강당
 - 13:00 슬픔과 연민
 - 17:30 이골리 / 엘스턴가의 비밀
 - 19:20 우리 집에 불이 났다 / 탈북소년들 중국에 가다*
 - 20:40 끝나지 않은 싸움-에바다*
 - 제 1세미나실
 - 18:00 프리아
 - 19:50 나이 아이 나의 땅 / 알로펜도
 - 21:10 다시 못 올 사흘
 - 제 2세미나실
 - 19:00 열대야*

- 11월 28일(일)
 - 예술극장
 - 12:00 이골리 / 꽃파는 할머니
 - 13:10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 : 대인지뢰 / 진실이 있는 곳
 - 14:10 에스코바의 자살골
 - 15:30 소리 / 무명천 할머니*
 - 17:00 소코로 노브레 / 다시 못 올 사흘
 - 18:20 모든 권력을 민중에게
 - 20:30 잃어버린 지평서 / 프리아
 - 소강당
 - 13:00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 : 대인지뢰 / 소코로노브레
 - 14:00 먼지의 집*
 - 15:30 화해의 문 / 우리 친구야 / 독방의 활력 / 기차길 옆 공부방*
 - 17:00 나의 아이 나의 땅/이관식 이혼
 - 18:30 잃어버린 지평선 / 조국은 없다*/ 장애인 김진욱씨의 결혼이야기*
 - 20:30 모략당한 나의 이름
 - 제1세미나실

- 12:00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 : 대인지뢰 / 이관식 이혼
- 13:50 엘스턴가의 비밀
- 16:00 부대행사 : 21세기를 준비하는 사람들
- 18:00 우리 친구야/변방
- 19:50 우리집에 불이 났다 / 피로물든 청춘
- 11월 29일(월)
 - 예술극장
 - 13:00 슬픔과 연민 1, 2부
 - 15:00 무명천 할머니
 - 15:30 장신구와 구슬
 - 16:30 레드헌트
 - 18:10 독방의 활력 / 민들레*
 - 19:50 생일축하합니다. 모그라비세
 - 21:20 소리없는 흔적
 - 11월 30일(화)
 - 예술극장
 - 13:00 슬픔과 연민 3, 4부
 - 15:00 피로 물든 청춘

- 16:00 '투자협정·WTO 뉴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선포식
- 12월 1일(수)
 - 예술극장
 - 12:00 열대야
 - 13:00 알로펜도
 - 16:10 끝나지 않은 싸움-에바다
 - 17:00 꽃파는 할머니*
 - 18:30 독방의 활력 / 나이 아이 나의 땅 / 콜롬비아 치육의 전쟁
 - 19:20 모략당한 나의 이름
 - 20:30 국가의 살인
 - 12월 2일(목)
 - 14:30 또 하나의 세상*
 - 15:30 멈추지 않는 대량학살 : 대인지뢰/꼭 한걸음씩*
 - 17:00 황제의 새 옷
 - 18:00 세계인권선언의 역사
 - 19:00 폐막식 / 폐막작 상영(올해이 인권영화상 수상작)
 - *표시는 영화상영후 감독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매체비평

-영화편 러브 레터

“‘러브레터’는 과거의 연인 추억담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사랑을 찾는 탐색의 드라마로 전이된다”



일본영화에 대한 과대포장된 신화의 거품이 걷히고 있는 시점에서 장안의 화제가 된 작품 '러브레터'가 공개된다.

“러브레터”는 일종의 신화다. 신화는 다량의 정보 은폐와 제한된 정보의 노출로 가능하다. 일본영화는 대학의 영화제에서 일부 소개되어 소수 관객의 입소문

으로 과대평가되어 모두 전설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일본 영화가 부분 개방되면서 구로사와 아키라의 ‘가게무사’, 기타노 다카시의 ‘하나비’, 이마무라 쇼헤이의 ‘우나기’가 의문의 푸경을 열었다. 하지만 입소문으로 성장한 기대감이 너무 컸던지 관객의 호응은 의외로 시들했다. 일본 영화는 바로 흥행 대작이라는 애초의 기대를 식은 일본영화는 관객동원력이 약하다로 수정해야할 상황에 처해있다. 일본영화에 대한 과대포장된 신화의 거품이 걷히고 있는 시점에서 저하비디오

시장에서 수십만장이 복제되고 거래되었다는 장안의 화제가 된 작품 ‘러브레터’가 공개된다. ‘러브레터’는 예술세계의 무국적성을 보여주는 이이와 순지의 작품이다. ‘러브레터’는 만화적 감수성과 뮤직비디오 같은 영상에 충직한 그물같은 내러티브로 짜여져 있다. 살아있는 여자가 죽어버린 남자 후지가 이츠키를 동명이인인 여자가 회상하는 형식으로 복원하는 이야기다. 와타나베 히로코는 등반사고로 죽은 남자의 졸업앨범의 주소로 편지를 보낸다. 편지는 부재하는 대상에게 보내지면서 과거의 연인에 대한 잔여감정의 정도를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기대하지 않았던 답장이 도착하면서 팽팽한 긴장과 미스터리 속으로 관객을 집어넣는다. 발신자는 동명이인인 여자동창생의 눈으로 펼쳐진다는 설정으로 내러티브가 정지하게 구축된다. 그러나 내러티브의 힘에만 전적으로 의존했다면

시시한 추억담의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다. 내러티브는 최소한의 구조일뿐 그 안을 채워넣는 내용물에 의해 정서가 자극되고 진정한 빛을 발한다. 내용물의 목록은 ‘잃어버린 학창시절에 대한 보고서’이다. 예술이 회상의 힘에 의존한다는 성격은 ‘러브레터’에서도 허겁지겁 입증된다. 회상은 자체 검열을 통해 현재의 시간에 다시 재생된다. 회상으로 견져올린 추억은 이름이 동일하여 바뀐 시험지와 그 시험지를 돌려주기 위해 밤늦도록 기다려 자전거의 라이트 불빛 아래서 대조, 도서부장에 동반 당선된 일, 대출되지 않는 도서카드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는 일, 그리고 쿨가 길에 종이봉지를 머리에 뒤집어 씌우고 도망가는 일 등... 동명이인이 겪은 고초와 해프닝이 추억의 이름으로 호명되어 프레임에 채우고 있다. 추억은 늘 각색되고 미화된다. 후지가

이츠키가 반추한 추억은 과거의 미화작업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씨퀀스 내에서 늘 시작과 끝과 어김없는 반전의 형식으로 관객을 흡입한다. 가장 큰 반전은 죽은 후지가 이츠키가 살아있는 동창생 후지가 이츠키를 사랑했었다는 증거물이 제시될 때 발생한다. 관객은 연인 히로코의 입장에서 죽은 이츠키의 과거를 마음 편히 경청하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도서카드 뒷면에 그려진 여자 동창생 후지가 이츠키의 얼굴을 보며 동명이인의 사랑을 깨닫는다. ‘러브레터’는 과거의 연인 추억담에서 잃어버린 시간과 사랑을 찾는 탐색의 드라마로 전이된다. 소수의 정보와 관객이 만들어낸 신화는 기대를 배반하거나 능가하기 마련이다. ‘러브레터’는 후자의 평가를 받게될 많지 않은 작품 중의 하나이다. 문학산 영화평론가

경주, 살아 숨쉬는 신라 천년의 고도

신라 천년의 영고성쇠가 서린 땅 경주. 경주시내에는 북쪽을 제외한 동서남이 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산들은 다시 선도산, 토함산, 고위산 등 높은 산으로 에워싸여 있다. 이처럼 겹겹의 산들은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는 견고한 성벽이 되었으며, 신라의 꽃 화랑들의 수련장이요, 불교문화유산의 요람이 되었다. 경주에는 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고분이 오늘날 사는 사람들의 삶터와 조화를 이루고 고도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고, 경주시 중심부인 황오·황남, 노동·노서동에는 거대한 고분들이 무리를 지어 일대 장관을 보여준다. 경주 시내에는 천년 신라의 숨결이 그대로 살아 있다. 그 예로서 천년 신라의

문화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으로 성덕대왕신종을 비롯하여 10만여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2천5백여점의 유물을 상설 전시하고 있는 국립 경주박물관, 반달 모양의 언덕 위에 궁궐을 세웠던 반월성, 밤하늘 별자리를 관찰하던 첨성대, 안압지 동쪽에 신라 최대의 사찰이었다는 황룡사터 등이 있다. 이곳에는 원래 대궐을 지으려던 터였으나 갑자기 황룡이 나타나 다시 고쳐 절을 짓고 그 이름을 황룡사라 하였다. 또한 신라 궁궐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동서·남북의 길이가 각각 190m 규모로 연못 가장자리에 굴곡을 주어 어느 곳에서 바라보아도 못 전체가 한 눈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든 안압지 등등이 곳곳에 자리잡고 있다.

이처럼 경주는 시대적인 아름다움을 엿볼 수 있는 곳이며 각종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는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속에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경주시청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이준호씨는 “도로를 내거나 건축물을 짓거나 사유지 땅에서 집을 짓는 등 공사를 진행시키던 중 유적이나 유물이 나오면 공사를 중단시키고 발굴사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그러나 “그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해야한다는 법은 그로인해 개인들에게 발굴사업을 피하기 위해 그것을 덮어버리도록 부채질하는 것과 같다” 따라

서 “경주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한 제대로 발굴해내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주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많은 문화재들을 보유하고 있다. 요즘도 하루에 유적, 유물발견이 몇십건씩이나 된다. 하나의 문화재에도 전설적인 성황이 짙으며 경주라는 지역의 명격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 신라 천년의 역사가 깃든 경주에 개인들의 노력과 함께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가미된다면 문화재는 더욱더 빛을 발할 것이다. 이소라기자 choya@mail.dongguk.ac.kr

사진으로 보는 경주의 명소



패릉과 영지 패릉은 신라에서 가장 완벽한 무덤으로 돌사자상·문무인석이 능을 수호하고 있으며 웅장한 숲속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다. 영지는 불국사 석가탑을 조성한 아사달과 아사녀의 슬픈 사랑 이야기가 깃든 연못이다. 석가탑을 조성하는 남편 아사달이 보고 싶어 불국사 앞을 서성대는 아사녀에게 한 스님이 “불국사 앞 연못에 탑 그림자가 비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탑의 그림자는 떠오르지 않았고 상심한 아사녀는 그만 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훗날 사람들은 이 못을 영지(影池)라 하고 끝내 그림자를 비추지 않은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불렀다.



소금강산 소금강산은 계절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자연경관과 백률사, 구불사터 등이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백률사는 527년(법흥왕 14년) 불교 공인을 위해 순교한 이차돈의 목이 떨어진 곳에 지은 절이다. 백률사 오르는 길목에서 굴불사터 사면석불을 만날 수 있다. 신라 35대 경덕왕이 산을 오르는 도중 스님의 경 읽는 소리가 들려 땅을 파 보니 바로 이 사면석불이 나왔다고 한다.



분황사 황룡사터 북쪽에 자리잡은 분황사는 민족의 고승 원효대사, 자장율사가 거쳐간 명찰이다. 634년(선덕여왕3년) 창건되었으며, 당나라 유학을 마친 자장율사가 초대 주지로 머물렀다. 또, 원효대사가 수많은 저술을 남기며 민중 중심의 불교철학을 집대성한 곳도 바로 이곳이다. 분황사에는 아이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다는 천수대비화와 솔거가 그린 관음보살변화가 있었으나 수차례의 전란으로 유실되고 말았다. 현재 분황사 경내에는 안산암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 쌓아 올린 석탑, 원효의 업적을 기리는 화쟁국사비 등이 있으며, 신비의 호국룡이 살았다는 우물 삼룡변어정이 천 년이 넘도록 사용되고 있다.



문무대왕릉 문무왕은 “죽어 동해바다의 용이 되어 왜구의 침입을 막겠다”며 “내가 죽거든 화장을 해서 뼈를 동해에 뿌릴 것이여 장례절차는 검소와 절약을 좇아라”는 유언을 남겼다. 아들인 신문왕은 그 유언을 따라 동해 중에 있는 바위에 유골을 뿌리니 바로 대왕암이다. 대왕암은 기동 모양의 바위들이 십자형 수로를 이루며 세워져 있으며, 한 가운데가 연못처럼 패어 물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다. 문화부

남산 연구소 실장 김구석씨를 만나 남산 ‘노천박물관’



오랜 신라의 역사와 불교정신이 예술의 극치를 이루어 그 자체가 문화재라는 찬사를 받는 남산,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김구석(남산연구소 실장)씨를 만나 노천박물관이라 일컬을 만큼 많은 유물과 유적이 있는 남산에 대해 얘기를 들어보았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 어우러져 ... 관광객 인식 부족 아쉬워”

보더리도 탑의 하층기단을 만들지 않고 산 전체를 하층기단으로 삼아 산과 탑이 하나가 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 예전과 다른 지금 남산의 모습을 진단한다면. =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관광객들이 많다보니 산내에 길이 넓혀지고 파여지며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남산 정상에 있는 균용헬기장과 법무부 경주 교도소가 인공이 가미되지 않은 신라의 대상이 모여진 남산에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 남산에 오르는 관광객들에게 부탁하고픈 말은. = 남산에 오는 사람들은 남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단순히 남산에 많은 문화재들이 있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산에 오르는 것 같아서 아쉽다. 하나하나의 문화재들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조상들이 무슨 마음으로 탑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생각을 했으면 한다.

이소라 기자 choya@mail.dongguk.ac.kr

잡인소식

학교 안에서 99 끼장터 연말결산대회

서울캠 학림관 소강당에서 99 끼장터 연말 결산대회가 열린다. 여학생실에서 주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마축과 테크노댄스, 섹스폰 연주, 힙합&재즈댄스&차차차 등 끼로 뭉친 젊음들을 만날 수 있는 풍성한 공연이 될 것이라고. 오는 29일 오후 5시, 서울캠 학림관 소강당에서.

Recreate 경주캠 댄스동아리 You-Loss의 8번째 정기공연. 힐링있던 여름의 터널을 지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번 정기공연의 테마를 'Recreate'로 정했다고. 우리의 모든 노력을, 열정을, 젊음이란 이름으로 평가받고자 한다. 더욱이 이번 공연은 노천강당을 살리자는 취지로 해 더욱더 뜻깊은 공연이 될 것이라고. 오는 24, 25일 오후 6시, 경주캠 노천강당에서.

소리창고 10회 추계정기공연 경주캠 음악동아리인 소리창고에서 제10회 추계정기공연을 연다. 누군가를 보고 싶고 느끼고 싶은 이 가을 잔잔한 음악에 취하고 싶은 분은 누구나 환영.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선배를 위한 추모곡까지 곁들여 있다고. 총 13개 곡을 선사할 예정. 오는 23일 오후 6시, 경주캠 원효관 소강당 1에서.

학교 밖에서 **밀레니엄 뮤지컬 '태몽'** 세기말의 잠깐의 청산과 새시대의 눈부신 비전. 대문호 셰익스피어와 21세기 한국 연극의 대명사가 될 이윤택의 시공을 초월한 해후! 한국 뮤지컬 대상의 역대 남우주연상 수상자들이 총출동하여 더욱 발만하라고.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월·화·수 7시 반, 목·금·토 3시·7시 반, 일 3시·6시 반,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문의 (02)523-8984~7

이호찬 라이브 콘서트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묻혀져 갔던 이호찬. 그가 예전의 깨끗하고 어린 미성의 이미지에서 10년의 세월을 담아 강렬하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독립음반 "시간의 길"을 내고 다시 돌아왔다.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평일 7시 반, 주말 4시·7시, 대학로 충돌 소극장에서. 문의 (02)764-5716

메아리

텔미썸딩

▲ 사건을 마무리 지었는가 싶더니 무언가를 발견한 한석규가 절규한다. 관객들로 하여금 시종일관 연민을 불러일으킨 심은하가 요부의 모습으로 파리행 비행기에 유유히 오른다. 극장내에 있는 관객들은 어리둥절하다. 뭐야? 도대체 누가 범인이라는 거야? 지난 주에 개봉한 한국영화 '텔미썸딩'의 마지막 장면이다. 스틸러라지만 이렇다할 반전도 없이 싱겁게 끝날

것처럼 보인다 이 영화는 '그래도 뭔가 있겠지'하고 기대한 관객들에게 이 마지막 장면을 선사했다. 하지만 관객 대부분은 영화 '텔미썸딩'에게 요구한다. Tell Me Something! ▲ 하드고어(Hard-gore) 스틸러를 표방하고 토막난 사체, 검붉은 피 등을 화면 전체에 흘뿌려 놓은 '텔미썸딩'은 엽기적인 연쇄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다. 전체적

으로 설명이 부족한 영화였는데 정작 영화의 감독은 관객이 상상할 수 있도록 일부러 의도했다고 한다. ▲ '고급 옷로비 의혹사건' 청문회는 모두 거짓말 잔치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한 '아줌마'가 사랑하는 다른 두 아줌마를 위해 코트남반일을 맞췄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맡은 검사는 아줌마의 남편으로부터 '수사비밀보호 규정'을 위반했다

고 고소당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법률적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아줌마'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했을리 없다고 배후조종자가 있을 것이라고도 한다. 이견 정할까지 하드코어(Hard-core) 스틸러다. 이것 또한 설명이 부족한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꼭꼭 감춰두고 보여주지 않을 것만 같다. ▲ 어쨌든 절찬성양중인 비슷한 장르의 두 영화 '텔미썸딩'과 '옷로비 의혹사건'. 비록 정자는 '대박'을 터뜨리지만 후자는 조기종영될 것이라는 게 평단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옷로비 의혹사건'의 총감독 최병모 특별검사가 해임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얘기도 나오고 있다. 여하튼 진실만을 나에게 말해주세요!

김미경 편집장 pink@cakra.dongguk.ac.kr

도박

현재 방송계를 비롯한 학내에 성행하고 있는 도박성 상행위를 진단하고 인간의 기대심리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내어맡김' 과 '내어던짐' 의 차이를 터득하자

인식론적 행위와 존재론적 실천이 조화될 때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눈을 가질 수 있다

요즈음 대학가 주변을 둘러보면 온갖 사행성 오락이 판을 치고 있다. 경품전용 오락실이나 상금 따내기 게임대회 등에 적지 않은 학생이 몰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 사행성 오락은 공짜를 바라는 불로소득 기대심리를 조장하며, 건전한 욕망을 비정상적 경로로 왜곡시키는 도박의 길로 안내하며, 사회적 인간관계를 해칠 수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고들 말한다. 사실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 학생들에게 사행성 오락에 빠지지 말라고 명령조로 경고할 마음이 없다. 혹은 결코 요행수를 바라지

말라고 설득적으로 충고하지도 않겠다. 역설적으로 그런 사행성 오락의 본질적 의미를 이해한다는 조건에서라면 언제든지 좋다고 권유할 참이다. 즉, 어떤 행위를 할 때 자신을 '내어맡기는 것'과 '내어던지는 것'의 차이를 진정으로 깨닫고 있다면 말이다.

오늘날 세상 곳곳에는 '행운'이란 유령이 떠돌고 있다. 투기심과 요행수가 묻쳐 '욕망의 실현'이라는 화사한 간판 아래 기회와 절박함을 찌르는 선택의 가능성은 필연적인 절호의 찬스로 포장된다. 누구에게나 행복으로의 통로는 열려있다고



선전물은 물론이다. 사람들은 바야흐로 실재하지 않는 행운이란 상품에 참을 수 없는 흥미를 느낀다. 오며 가며 기회의 상점을 기웃거리곤 한다. 드디어 절박함에 내몰려 결단을 내리고 나면 어느새 겹겹이 행운표만이 귀신처럼 맴도는 곳에 내뿜어쳐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호주머니는 훨씬 가벼워졌고, 찡그린 얼굴에는 불운의 흔적만 남아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다음날 또다른 행운의 점포를 향해 힘차게 재출발한다.

그러나 그 '행운'이란 유령을 멀리 쫓아내기 위해 따로 푸닥거리를 할 필요는 없다. 그 유령은 음식을 얻어먹었다고 곱게 물러날 신사적인 잡귀신이 아니다. 아니 그 유령을 귀신으로 대접할 까닭이 전혀 없다. 그 유령은 사람의 마음에 자리잡은 그늘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타인이 아니라 다른 자아일지 모른다. 어찌하면 모습을 바꾼 나 자신일 수 있다.

우리 인간은 기실 이 세상에 내어 던져진 존재이다. 그렇다고 그런 실존적 상황이 곧바로 세상 속으로 자신을 그냥 내어 맡기라고 정당화하는 건 아니다. 불췌 내어 던져졌기 때문에 오히려 자율적인 선택이 더욱 요구된다. 우리의 자유스러움이 빛을 발하는 근거도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무한한 책임에서 마련된다. 무릇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에서 생각없이 결정내리는 게 아니다.

결단의 과정에서 '내어맡김'이 지극히 표면적인

인식론적 행위에 머문다면 '내어던짐'은 존재론적 실천으로서 마음 속 깊숙하게 진입하는 행위이다. 존재하는 나와 인식적 대상인 나가 하나일 경우에만 스스로 나를 세상속으로 내어던질 수 있는 법이다.

행운이든 기회이든 어떤 것에 자기의 마음만 내어맡긴 채 몸은 따로 노는 것은 위태로운 방식이다. 성공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손쉽게 무너지고 만다. 그 무너짐은 의지의 쇠락과 충동의 약화로 직결되기에 인간을 파국으로 유도할 수 있다. 실령 간신히 성공을 거두어 욕구의 충족을 느꼈다 한들 허망함에서 헤어날 수 없다. 왜냐하면 돈에 의한 보상은 몰신 숭배적 본성을 만족시키지만 경제의 투명한 영역을 벗어나자마자 자기가 바라는 바를 더 이상 알지 못하게 만든다. 누구라도 아득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처지에 놓이고 만다. 그에 비해 어떤 것에 자기의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내어던지는 일은 결의 의외와 속의 본질을 통찰하는 방식이다.

합리적인 투자와 맹목적인 투기를 구분하는 단순성을 넘어서서 모든 인생을 한꺼번에 걸고 자신을 내어 던지는 실존적 기부의 의미를 체득하는게 중요하다. 만일 어떤 게임에 자신의 총체적 의미를 내어던져서 걸었다면, 그것은 형식상으론 단순한 돈내기 일지라도 그 내용상으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충동, 동기, 의지가 결합하여 만드는 일종의 인생재기로 전환된다.

'내어맡김'과 '내어던짐'의 차이를 어느 정도 자각한다면, 길거리에서 즉석 복권을 정성스레 끊어대는 아저씨의 얼굴에서 절망만 읽어낼 필요는 없다. 어두운 낮빛에서 희망의 가느라던 여지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물건을 한아름 안은 채 백화점의 경품용권을 받으려고 줄을 서서 힘겨워하는 아줌마의 몸짓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품추천권을 가진 쿠폰을 수집하는 청소년의 진지한 눈빛에서, 문방구에서 경품을 바라보며 뽕기기를 열심히 돌리는 어린이의 손끝에서도 '내어맡김'의 태도에서 '내어던짐'의 자세로 옮겨가는 징후를 찾아낼 수는 없을까? 나는 지금 우리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통해 '내어맡김'과 '내어던짐'의 차이를 충분히 터득해 나가는 지성인이라 믿고 싶을 따름이다.



고창택 인문학과 철학과 교수

'한탕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60년대 추수를 끝낸 풍요로운 가을, 평범한 집안에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에 한 가정이 투견으로 돈을 날려 고등학교에 진학할 입학금까지 날려 버렸다.

이 소식을 접해들은 자식은 서울로 상경하고, 온갖 고생끝에 자수성가를 했지만 그 충격을 잊지 못하고 공부못한 미련을 자식에게 한풀이 한다. 이는

는 쾌락에 중점적으로 우리는 관심을 기울이고 행해 왔으나 도전과 모험도 약의 화신으로 변하기도 한다.

그중 군대를 동원해 쿠데타를 성공시켰다가 단죄를 받게된 전직 대통령들이나 아버지 권력이 곧 내 것이라 인식하고 국가 경영을 좌지우지하며, 차기 대권까지 넘본 젊은 '황태자' 모두 모험추구의 일계점을 넘긴 도박 중독자들이다. 이들이 그동안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를 관동으로 해서 도박을 벌이는 동안, 국민은 불모로 잡혀 사지로 내몰려져 버린바

두번째 부인과 신혼여행중 도박으로 모든 돈을 탕진해 부인을 먼저 모스크바로 보내 출판사에 돈을 꾸어 자신에게 보내라고 할 정도로 도박광이었다.

이처럼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도박심리는 끊이지 않고 그 골재속에 얽혀 있다.

과거 대학생들은 슬문화로 대표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를 코앞에 둔 대학생들은 스타크래프트와 테크노, D.D.R.(Dance Dance Revolution)로 그 공유 문화가 변천되어 왔다.

이에 뒤질세라 요사이 기세를 당당히 올리고 있



밤을 잊은 학생들... 새벽 2시 경품전용 오락에 빠져있는 대학생들. 큰집수가 니기를 비리며 초조하게 화면을 박양우 기자 woo@mail.dongguk.ac.kr

대학사회에 파고든 도박성 상행위 열풍 사회전반에 뿌리박힌 도박풍토 자정 필요

소설같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 주위에 흔히 있던 일일 것이다.

만약 투견으로 돈을 많이 판다면 아들은 서울로 유학을 올 수도 있었다는 가정도 해볼 수 있으나 어찌됐든 '인생은 도박이다'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심심치 않게 흘러 나온다.

기대심리에 의한 이러한 도박행위는 쾌락과 도전 그리고 모험이라는 단어로 분리될 수 있다.

쾌락은 사회적인 것대로 약으로 구분되지만 도전이나 모험은 선으로 구분된다. 예로부터 선보다

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풀어나가겠다는 정치인들의 행태는 실망스럽게도 위에서 비판하는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줄줄이 검찰청에 들락거리는 정치인들 모두 재수가 없어 걸렸지만, 이번 판만 잘 넘기면 차후를 기약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사지로 몰린 국민들과 호흡하고 있으니 말이다.

예술의 한 장르인 문학도 예외가 아니다. '죄와 벌'을 저술한 도스토예프스키도 소문난 늑음꾼이었다.

는 것이 경품전용 오락실일 것이다. 밤을 새며 배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은 "보통 하루에 1만원씩은 쓰게 되요"라며 "그 상품이 탐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크게 터지겠지하는 마음이 들어 배팅을 하게 되요"라고 말한다.

또한 각 게임방마다 스타크 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비를 지불하고 게임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상금과 게임방 무료 이용권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의 기대심리를 이용한 상술은 이제 사건이 아닌 생활이 되어버린듯 성행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내 학과 학술제도 상금을 걸어놓고 여러 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학가 이외에도 방송에서는 불우이웃을 돕는 취지의 퀴즈대회를 방송한다. 출연자는 맞춘만큼 상금이 올라가고 그 상금의 반액은 불우이웃기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위 상황과 다른점은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단 한가지 사실뿐이다.

사회는 그 경계를 넘었다손 치더라도 현재 대학 내 조성되고 있는 도박성 행위는 제재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도박성행위를 극복하려는 이성적 힘을 스스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후회를 하기 전에 말이다.

정미혜 기자 kai@mail.dongguk.ac.kr

박봉관 (인문과학대 국문과 3학년)

우연히 시작한 만화 작가... 이제 독자에게 책임 느껴

"만화 스토리 작가가 특별한 것도 아닌데 인터뷰까지 할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네요"라며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어보이는 박봉관.

본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하고 있으며 현재 만화책 스토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97년 제대후 만화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처음 작가가 된 계기는 군 복무기간 중 국방일보에 재미로 올린 글이 입상하면서 부터 시작됐죠. 군 제대후 복학하고 있는 그는 97년 제대후 만화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처음 작가가 된 계기는 군 복무기간 중 국방일보에 재미로 올린 글이 입상하면서 부터 시작됐죠. 군 제대후 복학하고 있는 그는 97년 제대후 만화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처음 작가가 된 계기는 군 복무기간 중 국방일보에 재미로 올린 글이 입상하면서 부터 시작됐죠. 군 제대후 복학하고 있는 그는 97년 제대후 만화계에 발을 들여 놓았다.

며 말을 이어 갔다.

"데뷔한다고 해서 바로 작가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1년동안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글 쓰는 방법, 서술 형식 등 많은 것을 배운 뒤 글을 쓰게 되었죠. 배우는 기간동안 수업도 많이 빠지고, 잠도 많이 못자라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한두 번 아니었죠"라며 당시를 회상하듯 쓴 웃음을 지어 본다.

"처음 진혼객적이라는 만화로 데뷔했는데, 예상 외로 독자에게 어필이 잘 됐었나봐요. 저의 데뷔작이자 지금까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작품이기도 하죠. 그

때문에 아직도 작가로서 명분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현세의 '야설'을 비롯해 잡지의 연재만화까지 쓰게 됐고 현재 사마달의 '달인'과 '귀곡성'이라는 작품을 쓰고 있는 그는 "지금쯤 슬럼프에 빠졌는지 저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제가 추구하는 장르가 무협만화인데 무협만화 스토리를 보면 대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더욱 창의력이 돋보이고, 재미를 더할수 있도록 써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정신적으로 시달리곤 해요. 또 학교생활은 동아리 활동과 생활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힘들어요"라며 학생과 작가를 병행하는 어려운 점을 토로 했다.

"하지만 제 자신이 만족하며 하고 싶었던 일하기에 또한 제 만화를 보며 재미를 느낄 독자들도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할수 없다는 생각으로 참았죠"라며 굳은지를 다시 한번 나타냈다.

"무협만화도 좋지만 젊은층 위주로 하는 하이틴 만화 스토리도 써보고 싶어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날이 오겠죠" 자신만의 세계를 추구하며 바쁘게 생활하는 그의 모습에서 동국을 빛낸 거장이 될 모습을 그려 보게 된다.

(연) terry@mail.dongguk.ac.kr

경주 지역 소식

항성동 무료 공부방 자원 봉사자 모집 뜻있는 후원인 기대

경주민주청년회(회장=이광춘)는 지난해 11월 23일 항성동 무료 공부방을 개설했다. 이는 IMF 당시 황성동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어려워진 가정경제에 사교육비가 커다란 부담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 주로 실직가정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현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초등부 43여명 중등부 23여명을 교육하고 있는 공부

방은 자원봉사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연말까지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던 청년회 회원과 실업극복 국민운동본부의 도움이 끊기면 공부방의 운영이 힘들어 질 것이라 밝히며, 뜻있는 사람들의 후원을 기다리고있다.

위치 : 황성시장과 유원아파트 4거리 사이 빨간 벽돌집 2층(1층은 최정은 피아노) 문의 : 771-5472, 773-2143

감포,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 열려

감포사회복지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나 무의탁 노인들을 위해 '따뜻한 겨울 보내기 행사'를 마련했다. 지원품목은 △난방비 △구호미 △이불지급 등이며, 후원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으로 연락하면 된다.

▲농협 : 721093-51-053748 (예금주-월드비전 감포)
▲신협 : 1-004381-1901
▲수협 : 641-01-034382 (예금주-선명회 감포)

◇경주캠 국문학과 창설 20돌 기념 전통국인 백일장 전문부문 장원

사진

나는 가끔씩 일부러 지난날의 사진을 들여다 본다.

두 권의 앨범속에 가득 담긴 사진속에는 저마다의 사연을 담은 사람들이 있다. 그 속에는 지금은 잊혀진 이름들도 있고, 몇 해를 걸쳐 꾸준히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그 때 그때 앨범을 꺼내볼 때 마다 손이 가는 사진이 다르다. 어떤 날은 눈물로 손이 머무는 사진이 있고, 어떤 날은 박장대소하며 잡는 사진, 또 어떤 날은 그저 흐릿한 미소만으로 꺼내게 하는 사진, 아픈 가슴, 미안한 마음으로 손이 머물게, 눈이 머물게 하는 사진이 있다. 그리하여 때때로 그것들은 나로 하여금 지나간 시간들을 생생히 살려놓아 잠못들게도 하며, 말뚱하게 그리운 지난 시간의 간절함으로 결국 그 그리운 이에게 편을 들게도 하며, 긴긴밤 몇시간씩 전화로 이야기꽃을 피우게도 한다.

하지만 간혹 그리워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분명히 함께 웃으며 남긴 사진인데 지금은 곁에 없다. 어떤 계기로 잊혀지게 되었는지, 멀어지게 되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지난날의 인연들은 그 인연을 사진 하나로 흔적을 남겨 놓았다.

그것은 나의 의식이 살아있는 한 "인연의 증거"로 남을테니 그만하면 좋아한 장이라해서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설령 나중에 나쁜 인연으로 만나더라도 "나는 그런 사람 못른다" 하며 오리발을 내밀어도 소용없는 일을 만들테니 말이다. 나는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사진은 그 소중한 인연의 발자취를 남겨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진속의 나는 거의 비슷하지만 (이를 반쯤 드러낸 채 앉은 모습 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란...) 내 곁의 사람들은 다르다. 그들은 사진마다 다른 얼굴, 다른 표정이며, 다른 시간이다. 따라서 그들을 추억하는 이유도 다르다. 아픈게 기억되는 얼굴을 보면 쓰다듬어 주고 싶도록 안쓰럽고, 좋은 얼굴들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아마 시간의 힘도 한 몫 했으리라...

좋은 얼굴은 지금보다 여전히 좋고, 미안한 얼굴 역시 여전히 미안함으로 떠오르는 건 마찬가지인데, 화나게 하는 얼굴, 미운 얼굴만은 여전히 지가 않다.

그 얼굴은 예전같지 않고, 반이상은 화도, 미움도 가라앉아서 그 미움도 화남도 그리움으로 떠오르게 한다. 내역시 누군가에게 화나는 얼굴, 미운얼굴이 되었다면, 오랜 시간이 지난 사진속에서 그걸 바라보는 그 누군가에게 용서받게 되길, 그리워지게 되길 바란다.

대부분의 사진은 좋았던 일, 흥겨웠던

일을 추억하게 한다. 그래서 사진속에는 웃는 얼굴이 많다. 흔하디 흔하거니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사진 찍는걸 기피하고, 또 그런날 남긴 사진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안좋은 날의 사진만 없었는게 아니다. 너무 좋은 날, 정말 설레이고 행복한 날에도 사진은 없다. 그것은 그런 날에는 사진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좋기 때문이고, 찍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 보라 - "너무 좋은 날엔 사진이 없다." 이 말은 아마도 거의 맞을 것이다. 많이 행복한 순간, 그 순간에만 빠져 시간을 보내다 집에 돌아와 혼자 떠올리는 시간이 되면 "아참! 사진 찍을걸... 사진기 가져갈걸..."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앨범속에 우리들이 남겨놓은 사진들은 "적당히 즐겁고 행복한 때, 남들이 다 좋아할 때, 모두가 즐거운 때"인 것이다. "내가 정말 행복할 때, 눈물나게 기쁠 때의 아름다운 추억"의 순간들은 모두 사진이 아닌, 그 자신들의 머릿속에 찍혀 남겨져 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 축복해주는 가족들에 의해 그 첫순간이 사진으로 남으며, 또 떠날 때 역시 가는 길을 밀어주는 많은 이들에게 사진 한 장을 대신으로 하고 간다. 또 이미 우리 기억속에 사라진 태어남을 사진 한 장으로 기억하고, 죽음으로 온 길을 되돌아가고나면 사람들은 또 남은 사진으로 "나"라는 존재를 기억한다. 움직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침묵속에는 백마디의 말보다 더한 사연과 추억, 그리고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사진은 사진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까지 이어져 온 인연들을 추억과 연결시켜주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나를 생각하게 해 준다. 비록 정말 잊혀지지 않는 순간은 사진이 아닌 머릿속에 기억되고, 그것은 칼라사진보다 선명하고 오래가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머릿속의 선명한 사진인 것이다. 마치 첫사랑의 그를 처음봤을 때, 한 눈에 들어오던 그의 얼굴이 사진처럼 없어도 그대로 나의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나는 오늘도 추억을 곱씹는다. 빛바랜 어느 아름다운 시절의 사진한장을 꺼내어 그 속에서 웃고있는 이들의 이름을 되뇌인다. 하지만 이미 그 속의 절반 가량의 이름은 잊혀지고 있다.

추억은 이렇게 시간속에 흐려져 간다. 하지만 사진은 그 추억을 깨끗이 지우지는 못한다. 그것은 삶과 추억의 역사이며, 인연의 명백한 증거이므로...

정영희(인문과학대 한국어문학부 2학년)

발언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바란다

약대생의 한약사 국가시험응시를 응원 하려는 정부의 태도를 보며, 전국 5000 한의대생이 11월 8일, 총투표로 수업거부를 결정하며 강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왜 한의대생들은 학생의 소중한 권리인 수업권마저 포기하려 하는가. 93년, 96년 '한약분쟁'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인론들이 보도하듯 단순히, '약사에게 한약의 조제권을 뺏길수 없다'는 이익집단들의 업권다툼에 학생들이 진정 휘말린 것인가. 우리 한의학도가 그토록 열망하는 것은 해방이후 한반도에 이식되어 왜곡된 미국식 양방의료제도의 틀 속에서, 수없이 준폐의 위기를 맞으며, 침탈을 받아온 한의학의 독립적 자리매김이 93년, 정부가 약사의 한약조제를 금지하는 조항을 변칙적으로 삭제함으로써, 한의학도의 투쟁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약사의 한약조제는 한의학과 양방의료체계를 왜곡하며, 한의학과 양의학의 상호 독자성과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것이었기에 한의학도는 '민족의학 사수'와 국민건강권 확보의 가치를 걸고 일어섰다. 93년 1년동안 한의학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기만하고, 한의학의 독자적 자리매김을 부정하는, 약사의 한약조제를 허용하는 비상식적인 약사법 개정을 반대하며, 온몸으로 정부의 한의학 말살정책에 온몸으로 저항하였다.

그 결과로 정부는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와 한약을 담당하는 직능으로써, 한약

사 제도를 만들어 한의학의 독자성을 지키는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95년 한약사를 배출하기 위해 설립된 한약학과를 한의학과와 무관한 약대 내에 설치하여, 한약사의 의미를 왜곡하기 시작했으며, 96년에는 93년 약속사항을 저버린 무원칙한 한약조제시험을 통해 약사의 한약조제를 용인함으로써, 또 다시 한의학도를 투쟁의 거리로 내몰았다. 이 땅에는 현재 96년 무원칙한 한약조제시험을 통해 대량 배출된 2만 4천 여명의 한약조제약사가 버젓이 존재한다.

지난 5월 28일 보건복지부는 2000년 2월 제 1차 한약사 국가시험 일정을 발표 했다. 그러나, 정부는 97년 3월 6일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에서 약대생과 약대 졸업생이 한약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적인 부칙을 삽입했다. 민중의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는 단지 그것을 담당하는 전문인의 것이 아니다. 명백히 의료주체는 이 땅 민중이기에, 의료제도의 수혜자는 우리 모두 이기에, 의료의 올바른 모습과 그 속에서 한방의료체계를 올바르게 자리매김 하고자하는 우리 한의학도의 투쟁에 학우들의 고민과 지지를 호소한다.



이성민(한대의 학생회장)

김진희(인문과학대 중어중문학과3)

약대생에게 듣다

중국유학, 삶의 폭 넓혀줄 계기 돼

1년전 중국 남경사범대학을 다녀와서 지금은 중문과 3학년이라는 그녀의 이름은 김진희. 그녀와의 인터뷰는 어른이 완전히 자리잡은 시간 교외의 한적한 카페에서 시작되었다.

"중국과 한국은 대학문화가 많이 다른 거 같아요. 중국은 한국의 여대생처럼 화려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언어학 전공후 졸업해도 회화에는 약한 우리와 달리 그곳 학생들은 번역까지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라며 중국을 추억하는 그녀는 한국 학생들이 학업을 대하는 소극적 태도를 안타까워 하고 있었다.

중국의 좋은 모습을 더 많이 기억한다는 그녀, 그러나 "국민성은 아직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고 또 장사숙이 너무 밝아서 외국인들이 물건을 살때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라는 말로 중국의 단점을 꼬집어 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중국에서 어떻게 생활할까 하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혼자라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알아들 수 없던 말도 차츰 들리고, 무엇보다 대학에서 공부하러 온 외국인을 위해 따

로 외국인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 좋았어요"라고 남경에서의 대학 생활을 이야기 하던 그녀는 "문제는 음식에 있었어요. 아무리해도 적응이 안되는 음식때문에 고생도 많았죠. 게다가 하루 수업이 끝날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단어와 공부거리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라며 지난 유학생활의 고충도 털어놓았다.

또, 유학생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억에 대한 물음에 "제 방짜이 일본인이었는데, 우리를 다 친한 중국친구가 있어 셋이 같이 살았어요. 초기에는 잘 지낼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지내보니 사람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정말 잘 지냈구요"라고 담담히 유쾌하게 웃는 모습이 그들의 우정을 짐작케 해

◇경주캠 국문학과 창설 20돌 기념 전통국인 백일장 전문부문 장원

상처

예고 없는 찬 기운에 몸이 아팠다
 열 오른 몸 구성구적으로
 날카로운 햇살이 침투하여 수분을 앗아가고
 그대 향한 한결같은 마음은 빙글고 지쳐
 지나가는 바람 한줄기에도 온몸을 떨었다
 마른 입은 비가 오길 바랬다, 미련이 남기 전에
 한차례의 비와 함께 우수수 떨어진다
 가슴 빈 구석에 몇 개의 추억만 남겨둔다면
 동등 구르는 발자국처럼 조금해져
 차라리 냅 놓고 빈 하늘을 보다
 힘겹게 잡고 있었던 손을 놓치고 말았다
 약해져 가는 인종을 끊어 놓은 건
 삭풍만이 아니었다
 가는 줄기로 그해도 오래 견디었다고
 툭툭 떨어 주기만 한다면,
 뒹구는 중에도 사람들의 발자국을 쫓았다

손윤미(인문과학대 국어국문학과 3학년)

의학상식

일반인들이 흔히 말하는 위염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광범위하다. 체했다, 소화가 안된다, 배가 더부룩하다 등의 비특이적 증상부터 쓰리고 아프다 등의 증상까지 상부 위장관 모든 증상을 총 망라한다. 그에 비해 의사가 사용하는 위염의 개념은 임상학적인 용어가 아닌 병리학적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위염은 급성 위염과 만성 위염으로 분류한다. 급성 위

염은 미란성 위염(출혈성 위염)이 가장 주된 형태이며, 만성 위염은 표재성 위염, 위축성 위염 등으로 분류한다. 과거에는 흡연, 스트레스, 약제, 자극적인 음식 등 생활환경이나 습관 등 위염의 원인으로 여겨져 왔으며 최근에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라는 균의 감염이 또한 위염의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임상 양상을 보면 급성 위염에는 위점

과음·흡연 자제와 충분한 수면이 위염 탈출구

막 출혈의 정도가 심한 출혈부터 아주 경미한 출혈까지 있을 수 있다. 출혈을 제외하고는 미란성 위염은 대개 증상이 없다. 그러나 흔하지는 않지만 심와부나 상복부 동통, 오심 및 구토 등의 증상이 있다. 통증은 경양보다 훨씬 덜 흔하다. 만성 위염의 증상은 급성 위염과 비슷하나 대체로 그 정도가 약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특징이며, 속쓰림, 심트림, 헛

구역질 등의 증상이 가장 흔하다. 위축성 위염이 위의 하부에 국한되어 있고 증세가 가벼운 경우에는 공복시 위가 아프고 속이 쓰리며 트림이 나는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런 증세는 젊은 사람에게 많다. 고령자의 경우는 위축성 위염이 위의 상부에 까지 퍼져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메스꺼리는 느낌을 갖기도 하지만 아무런 증세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원인적인 인자를 제거하여야 하는데 과음, 과식, 흡연 등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식이요법으로는 필수로 위에 자극성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며, 재산제, 소화효소제, 위점막 보호제, 위운동 촉진제 등의 사용이 필요할 때가 많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신경 안정제의 투여가 필요한 때도 있다.

커피나 짜고 매운 음식과 같이 자극성이 강한 음식을 피하고 폭음, 폭식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또 수면을 충분히 취하고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운우 이문우내과 원장

이운우 이문우내과 원장

소나기

99 학생회 vs 밀레니엄 학생회



△밀레니엄 학생회 Y2K 조심!!
 △새기말 학생회 vs 새천년 학생회.
 선거운동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한표의 투표로 2000년 학생회를 세웁니다.
 △다음번 학생회는 재선거가 없었으면...
 2000년 학생회도 파이팅.
 △애나 지금이나 학생회들은 큰소리만 뺏
 뺏지면 다 해결되는 줄 안다.
 △새천년에 발맞춘 학생회는 진정 학우들
 을 위해 얼마나 충실할 것인지 의문스럽
 다.
 △밀레니엄 학생회는 사이버 캠퍼스를 만
 들 수 있을까?
 △99학생회의 절차를 똑같이 밟으려면 밀
 레니엄 학생회 구성하지마!
 △99학생회 운영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하늘로? 아님 땅으로 꺼졌나?
 △99학생회의 비밀들을 알면 우리모두 다
 친다!
 △새학생회(?) 바뀐건 공약과 결모습뿐.
 △니들끼리 해먹지말구 나누어 먹자.
 △밀레니엄(?) 세월은 그럴지 몰라도 학생
 회에 밀레니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밀레니엄과 99학생회 싸움은 아직 끝나
 지 않았다.
 △밀레니엄 학생회는 99학생회와 다를 것
 이 없을걸.
 △밀레니엄 학생회의 비리는 해킹으로 알
 아내자!
 △99학생회가 밀레니엄 학생회를 밀레?
 △새학생회여 99학생회와 같이 사업 미루
 지 말고 미리 미리!
 △99학생회여 차세대 학생회에 밀리지
 말라.
 △오래 오래 천년이 지나가도 안 변할 학
 생회?
 △99학생회여 오는 새학생회를 맞이 위해
 머리를 밀어라.
 △탈력 바뀐다고 사람까지 바뀌나?
 △대가족제도 아닌 핵가족제도로 발맞춰
 라.
 △선거구제 기간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말
 해줄래? 묻지마! 다쳐!
 △99학생회와 밀레니엄 학생회는 한 통속
 이 아닌가?

TEL:22603491·2
 (0561)7702058
 FAX: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ID:dgpress
 나우누리 ID:동대신문
 천리안 ID: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헬이채볶음(1300) 대두매운탕(1500)
화	오징어덮밥(1500) 꼬치우동백반, 고구마, 잿빛튀김(1500)
수	모듬볶음밥(1300) 불고기덮밥(1500)
목	비유가스(1500) 순대이채볶음(1300)
금	탕수육(700) 육개장(700)

(단위:원)

상록원 학생·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생선찜(1300) 만두전골(3300) 소고기이채밥(1300) 닭고치구이(3300)
화	참치김치덮밥(1300) 갈비탕(3300) 불고기비빔밥(1500) 삼채데리야끼구이(3300)
수	오징어탕수(1500) 냉이국(3000) 떡볶이백반(1300) 떡볶이불고기(3500)
목	짜장밥(1300) 삼계탕(3800) 오므라이스(1500) 낙지볶음(3300)
금	제육볶음(700)

(단위:원)

모니터링

제 1284호 동대신문을 읽고

등록금 관련기사 취재 부족 광고선택에도 신중성을 기울여야

동대신문을 접하면서 무척 놀랐다. 등록금이 정말로 오른다는 생각에 말이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등록금이 오른다는 얘긴지 안오른다는 얘긴지 확실하지가 않은것 같다.

또한 1면 "등록금 문제..."의 기사에서도 운동권적인 학생회의 발언을 너무 많이 실어 같은 말을 계속 열거해 놓은 것 같았다.

본교 담당자에게 확실하게 등록금이 오르는지 동결되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취재내용은 하나도 없어 아쉬웠다.

한편, 모니터링을 청탁받았을때가

15일자 동대신문이었지만 8일자 신문에 나온 내용을 말해보려 한다.

동대신문 1면에는 범구경이나 불기 표기, 보리수 등 불교적 색채를 띄고 있다.

하지만 8일자 신문에 게재된 광고에는 CBS기독교 방송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에 관한 내용이 버젓이 나와 있었다.

불교종립대학에 다니는 본교학생이 이 학원에 수강해 기독교 방송에 취직하라는 말인가!

광고에도 신경을 써주는 동대신문이 되길 바란다.

김혜진(자연과학대 가정교육과)

도서관 방음·냉난방 완비 시급하다

5년째 다니고 있는 학교인데, 난 아직도 공금하기만 한다. "과연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가?" 하는 점이 말이다.

우선 도서관을 살펴보자. 도서관 3층 4열람실 벽은 간이벽이어서 전산실의 수업 내용을 무조건 들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출입문은 늘 열려 있어서 소음에 대해선 무방비 상태이다. 그리고 3층·4층 모두 화장실과 접한 문은 철문이라 전혀 방음이 되지 않는다. 더구나 요즘 같은 때는 추워서 도서관에 갈 엄두도 나지 않는다.

도서관이 진정 학생들의 면학을 위한 곳이라면, 우선 3층 열람실의 문을 이중문으로 설치하고, 간이벽을 제대로 된 벽

으로 교체하며, 아울러 화장실 옆 출입문(늘 폐쇄되어 있음)도 강당용 방음문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냉·난방도 용통성을 발휘하여 10월중순 이후가 되면 학생들의 필요에 맞추어 난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산 절약도 좋지 만 사고의 경직성과 확실성이야말로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한다. 말로만 21세기 발전을 외칠 것이 아니라 당면한 생활 속의 문제를 풀어 나갈 때 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도 좀 더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권현미(한의대 한의학과 2년)

내실있는 외국어교육 필요

내가 문제라고 여긴 것은 학교 복지시설의 문제이다.

내가 한 때 외국어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영어 회화반에 신청한 적이 있었지만 사람이 부족해 결국 폐강하고 말았다. 항상 외국어 교육원이 영어 회화반을 모집 할때에는 그런 식인 것 같다. 그럼 외국어 교육원에서는 학생들 유치에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나름대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는 영어 뿐 아니라 중국어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굳이 영어 회화반만 편성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과만 해도 중국어반을 편성한다면 듣겠다는 사람이 여럿 있는걸로 알고있다. 하지만 외국어 교육원에서는 학생들 유치를 위해 고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시청각실도 마찬가지다. 영어 회화를 공부하기 위해 비치해둔 비디오



동약광장

목격글

축하합니다

△회계인의 밤. 축하해요.
 -회계미인들.
 △사범대 임, 김! 당선 축하합니다. 꼭내년에는 결혼시켜 드릴게요. -큐트선전
 △김진아(사과98)님의 생일(11/23)을 진심으로 마니마니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오라지, 탐상연구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99 인문인
 △한국 고대사 연구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99 태종

열심히 합시다

△화영아. 3학년이 좀 고되더라도 힘내

구.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랄게
 -친구 EY
 △영선아! 감기걸려서 고생한다. 빨리 받게 웃는 모습을 보고싶구나.
 -정화
 △보고싶은 선영아! 힘들더라도 쏘만 잡아. 2학년이 얼마 안남았어. 새천년에 우리다시 만나자. FIGHTING
 -은영·화영
 △사범대 선거운동 하신분들 캠퍼있어요. 잘합시다.
 -예비 XX
 △수경아! 힘들겠지만 기운내구. 자주 휴가나온다니까 위안삼아. MS도 걱정할거야. -DKJ

그리고...

△계정주소를 짧게 dongguk.pe.kr/아이디
 -천하동국 dongguk.pe.kr
 △경명아 영선아. 빨리 쾌유하길 빌게
 -여보동이가
 △효찬고 동문회 홈페이지가 생겼어요. (http://my.netian.com/~hyochon/)



V I E W F I N D E R D O N G G U K 만추(晩秋) ... 어느덧 올 가을도 은은히 지나가고 있다. 위풍당당한 고목의 그늘에 숨어 싶어서 펼쳐보는 저 편지는 어떤 사연일까? 촬영=송광수 등문

무분별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억제 시켜야

얼마전 한 학생이 의아한 눈빛으로 정보관리실에 들어섰다. 과제를 하기 위해 컴퓨터실습실을 찾았는데 그곳에선 많은 학생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었고 관리자들은 왜 그걸 제재하지 않는냐는 불만에 쌓인 목소리였다.

모 광고에 나오는 '쌈장' 아이디를 가진 사람을 프로그래머(PRO-GAMER)란 하나의 직업으로 분류하는 시대에 살아가면서, 더 이상 게임은 나쁜 짓이고 학교에선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여긴 어느 정도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니는 대학이란 곳이고 무엇이 컴퓨터 실습실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정도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거란 기대에 자유롭게 개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결과를 얘기하자면 우선 한숨부터 나오게된다. 학생들의 자유실습시간 후 컴퓨터는 제 기능을 잃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우선 수업시간에 사용되어질 프로그램들은 도대체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컴퓨터 용량의 대부분이 게임과 학생들

이 임의로 설치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져 있다. 학생들을 위해 개방된 시간들이 수업진행에 지장을 주는 근원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결과로 남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다른 사람은 전혀 개의치 않는 이런 모습들... 대학생이라고 불리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닐까?

그리고 또다른 문제라면 학생들이 설치하는 이러한 프로그램 대부분이 불법 소프트웨어라는 것이다.

매학기 학교엔 한번씩 비상사태가 발생한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이란 타이틀로 시작해서 적발될 경우 한건당 5000만원이란 어마어마한 벌금의 대가를 치루게 된다.

좀 더 나은 환경과 부족함이 컴퓨터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건물마다 실습실 수를 늘려나가고 컴퓨터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의 무분별한 불법소프트웨어 설치로 이러한 대가를 치루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겪을 불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해 또한 좀 더 애국적인 차원까지 생각해본다면, 지금 사용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아직도 외국에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어순이나 특성, 문화등에 맞춰져 쉽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만 어렵게 많은 노력과 돈을 투자해도 불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듯 싶다. 비용을 치루지 않고, 힘겹게 노력한 다른 사람의 것을 허락도 받지않고 사용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는 민집의 불건을 가져오는것이나 남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훔쳐오는 것과 같은 내용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교내 실습실의 컴퓨터 상태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평보다는 나 자신으로 인해 내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사용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김정은(경주캠 정보관리실 조교)



은방글

축하합니다

△11월 22일 98이승연(할매) 생일을 축하합니다.
 -98정은, 미진, 명지, 사회
 △영하와 세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행정학과 일동
 △역사철학부 C반 19911246 김기남 양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서정패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광, 헌숙 수고했다. 내년 1년간 동연을 열심히 이끌어가길 바란다. 언제나 최선을!
 -DY Zzang
 △행정학과 학생 여러분 어제(17일) 일일 호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에게 쓰신다니 더욱 아름답 보이네요.
 -어떤 행정4

열심히 합시다

△내사랑 동기들아! 승단심사가 얼마 안남았다. 잘하자구나. -화랑선무부 15기장
 △새들은 횡단 보도로 건너지 않는다. 동국연극회 이번 정기 공연 열심히 잘하세요. 신경별로 쓰지 못해 죄송합니다. 동연 18기 화이팅
 -18기 인선

알립니다

△11월 22일~11월 24일까지 가정교육과 학생회장 후보자 등록 받습니다.
 -제15대 가정교육과 학생회
 △동국회 서예전시회 합니다. 학우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월 24일 학생회관 2층 전시실
 -동국회

그리고...

△미선아. 요즘 많이 출제! 요즘들어 추위를 더 타는것 같더라. 힘내고, 남은 학기 잘 보내자!
 -전산(아)96 터프걸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호박고추장찌개(1300) 경상도맑은국(1300) 김치볶음밥(1600) 해물덮밥(1800)
화	감자양파국(1300) 콩나물해장국(1300) 잡채덮밥(1800) 카레라이스(1500)
수	근대국(1300) 미역두부돼찌장국(1300) 돈육덮밥(1600) 전주비빔밥(1800)
목	김치국(1300) 순두부찌개(1300) 돈까스(1500) 쇠고기덮밥(1700)
금	쇠고기갈비국(1300) 견세우이육국(1300) 헬이채볶음밥(1600) 갈비탕(1800)
토	콩나물우거지국(1300)
일	하이라이스(1500) 강원장찌개(1300) 쇠고기볶음밥(1700)

(단위:원)